

DJ · 민주당 주장 ‘민주주의’ 憲法上 ‘자유민주’와 다르다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대담



宋復 교수

李明博 정부 출범 이후 우리 나라가 헌정사상 최악의 분열과 갈등, 사회혼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부정 파괴하려는 세력의 반체제적 국가 적대행위에 기인한다는 진단과 함께 대통령은 체제수호 차원에서 모든 법적 권한과 방법을 동원해 이들 파괴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됐다.

이와 함께 언론은 金大中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낱낱이 알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과 뒤집어엎자는 걸 한데 섞어 중도로 가서는 안되며 전교조를 해체해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 된다면 MB(李明博)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으니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사람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잘 못 뻘었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宋復 교수와 李相禹 교수는 지난 6월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언론인회가 마련한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언론인회는 '언론과 국익' 시리즈 대담의 일환으로 최근 벌어진 盧武鉉 전 대통령의 자살 사건과 金大中 전 대통령의 독재정부에 대한 국민선동 망언 등과 관련한 긴급 대담을 가졌다.

이 대담에서 宋復 교수는 MB정부가 경제, 국방, 외교는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국가발전과 성장과정의 갈등 분열요소를 통합하는 기능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우유부단한 리더십이 여

야 간에 국가적 불행사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宋 교수는 좌파는 법을 국가의 중요한 기본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이용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법치가 오히려 盧泰愚 정권



趙昌化 회장

言論은 實相 제대로 알릴 義務

때보다도 후퇴했다고 말했다.

李相禹 교수는 미국의 세계적인 인권 단체인 Freedom House가 한국을 아시아 48개 국가 가운데 민주화가 가장 앞선 나라로 평가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金大中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MB정부를 독재라고 하는 까닭은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재선동 발언이야말로 반 민주적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행이라고 말했다. 李 교수는 야당이 이 정부가 싫으면 노력을 해서 국민지지를 얻어 다음 선거에서 이기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면 될 터인데 국회동원을 거부하고 국회 내 논의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정치이며 시민은 자기 행위의 의미를 알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국민을 말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중이라고 한다면서 시민이 많아야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宋復 교수도 헛

사람의 둘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기본체제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선 가차없이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교수는 특히 대통령이 반대 저항에 눈치를 보느라 대한민국 체제수호에 어긋나는 교과서 내용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전교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수는 盧武鉉 전 대통령의 자살은 국가 최고 공인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국가품격을 파괴한 행위로서 무책임의 극치라고 입을 모았다. 宋 교수는 盧武鉉 정권 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고 자살국이란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자살예방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웠다면 바로 그 정책수립의 정부 수장이 자살하는 국가 불명예를 가져 왔다고 말했다.

宋 교수는 중도정책이란 좌·우의 가운데 정책을 의미하는 정책이 아니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그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이 시대 상황의 도리에 맞는 정책을 3년여 남은 임기중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교수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자는 사람들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람들을 한데 섞어 중도정책을 펴서는 안 되며 이 나라를 또다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파괴 세력들에게 넘겨주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 날 대담에는 대한언론인회 趙昌化 회장과 文明浩 부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 대담

大衆 아닌 市民정치 돼야 나라 바로 선다

趙昌化 요즘 우리 나라를 보면 북한이 원자탄을 만들었다고 해서 불안한 것보다도 그 원자탄을 만든 적을 앞둔 우리 남쪽이 여기에 대비하기는 커녕 지리멸렬한 가운데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를 보여 서민들이 더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앞서서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능률있게 해나가지도 못합니다. 여당은 170석이 넘는 다수 세력을 갖고도 힘을 쓰지 못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사사건건 국정에 발목을 잡기만 합니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 하신 한 분은 자살을 하고, 이 나라의 원로라고 하는 또 다른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대놓고 이 정부가 독재라 하고 국민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들고 일어나라고 선동합니다. 이런 게 역사적으로 있었는지, 한 마디로 난장판이 아닌가 합니다. 송복 교수님이나 이상우 교수님은 우리 시대의 몇 안되는 오로지 한 길을 가는 선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진단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처방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는 DJ(김대중)의 망언이라든가, 조문정국의 항방, 경제불황 속의 남북관계 등을 하나 하나 짚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宋復 이명박 정부가 경제, 국방, 외교는 잘 해간다고 봅니다. 정권 출범 2년이 채 안 돼 그 공과를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성적을 매기면 A 학점은 못돼도 적어도 B학점은 된다. 다만 정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건 과묵낙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국가 관리와 경영을 잘 해서 발전시키는 발전기능, 그리고 또 하나는 발전과 성장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요소를 통합하는 통합기능입니다. 이 통합기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대 여당이 돼서 여당 몫을 못하고 소수 야당은 등원조건을 내걸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등원할 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등원조건을 내걸면서 국회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건 민주주의를 철저히 배신하는 겁니다. 이런 야당에 3개월에 한 번씩 26억원이란 세금을 바치고 연봉 2억원에 가까운 세비와 활동비를 주고 수십억원의 혈세를 보좌진들에게 바칩니다. 역사적으로 언제 이런 나라가 있었느냐 하는데 이 걸 해결못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여야 간에 국가적 불행사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李相禹 정치란 사회질서를 창출, 관리하고 필요할 때 개혁하는 일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사회라고 안 해요. 그냥 집단입니다. 질서의 기본 이념이란 그 구



李相禹 교수

성원들의 불문의 약속입니다. 기본 규범은 독일어로 '그룬트 노름(grund norm)'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고 모두 합의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해야 하는 정치라는 게 무엇지 몰라요. 특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가 무엇지 모르는 거 같아요. 민주당에는 데모만 있고 '크라시(-cracy)'가 없고 한나라당엔 데모도 없고 '크라시'도 없어요. 야당은 특하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직소한다고 데모를 하는데 아까 송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쓰는 거지, 그 게 무슨 정치입니까.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정치에서는 특



宋復 교수

자기 행위의 의미를 알고 그 책임을 지는 국민을 시민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중이라고 해요. 민주주의는 시민이 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그 나라 구성원 즉 국민 중에서 적어도 반 이상이 시민이 돼야만 민주주의가 작동을 합니다. 선진국에선 되는데 후진국에선 하나 같이 안 되는 이유가 국민 중에서 시민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불행히도 시민의 숫자가 별로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조 선생께서 우리 나라의 대표적 선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선비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자기가 하는 행위가 무엇지 알게 하

사람만 출마시키면 안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민주주의가 무엇지,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자격시험을 보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국민에게 철저히 시민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몇 십년 뒤에 가면 좀 나은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어느 한 사람을 비난해서 될 간단한 상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걱정이입니다.

文明浩 농담으로 하신 국회의원 자격 시험 치르는 문제, 기록해도 될까요.

李相禹 그 전에 신문에 이런 얘기를 썼을 때 국회의원이 찾아와서 난리가 났었습니다만 관계 없어요.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니까요.

文明浩 저도 답답해서 최근에 춘원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다시 읽어 보았는데요.

李相禹 맥락은 같은 거예요. 민족개조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이 주권자라고 하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만큼 돼야 민주주의가 되지 않겠나 해서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개조가 아닙니다.

文明浩 전에 위컴(John A. Wickam, 1928~, 애리조나 거주, 1979~81 주한미군사령관. 1980년 8월 AP통신 기자회견에서 "한국민은 들쥐와 같은 민족이어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복종할 것이며 한 국민에게는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고 발언)이 얘기한 건 어떻게습니까.

李相禹 그것도 교육이 안 됐다는 얘기죠. 민주시민이 안 됐다는 거죠.

宋復 이명박 정부 2년동안 아까 이 교수 말씀처럼 시민이 사라진 나라니까 그런 파행 정국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서구의 시민사회가 300년이 넘었는데 우리 나라가 기껏해야 60년 갖고 그런 나라들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시민이 사라졌다고 할 정도인가, 그것도 지난 2년 동안 헌정 사상 가장 극심한 분열과 갈등양상을 드러냈는가, 그건 좌파세력이 지난 10년 동안 잡았던 정권을 잃은 데 대한 분노, 원한, 분통, 이런 걸 극복할 수 없는 패닉상태에서 온 것이라 봅니다. 정권을 한 번 장악해서 맛 본 심리적 만족, 쾌감, 그런 게 일시에 다 무너진 데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현 시기를 독재정부라 하고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은 자살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자살을 했는가, 그 자살의 의미가 무엇인가, DJ는 왜 그렇게 말했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3면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행위에 책임질 줄 아는 국민이 市民
'獨裁' 뜻도 모르면서 선동하는세력 한심

히 국회에서 나오는 걸 보면 답답한 게 있는데 다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칙이란 다양한 의견의 분포를 확인한 다음 그 분포에 따라 통합 포용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수면 자기네가 진리를 가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건 김일성이 말한 이른바 신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주주의가 그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그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비롯 정당참여 정치인, 국회의원, 국민의 일부도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것 같아요. 조 회장이 말세와 같다는 얘길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질서를 지키겠다는 기본 생각이 없으니까 마구 나가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어떤 나라에선 잘 되고 또 어떤 나라에선 안 되는가 보면 간단해요.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입니다. 저는 시민을 국민과 구분합니다. 국민 중에서

는 거, 이 게 선비의 역할입니다. 전직 대통령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자살을 합니까.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자기행위에 책임을 안지는 사람은 일개 국민의 자격도 없을 텐데, 그 사람이 대통령 지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래 가지고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했다는 사람이 나서서 독재의 뜻이 무엇지도 모르고 독재라 하고 국민이 들고 일어나라고 선동을 해요. 그 사람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행을 해 이런 혼란이 왔습니다.

그 처방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지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을 각인시키는 국민운동이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건 농담입니다만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아무나 못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도 국가시험을 치러서 합격한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 대담

法的 권한-방법 총동원 파괴세력 제거를

2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교수가 노무현의 죽음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노무현은 죽을 권리도 없고 죽을 자유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직 대통령은 최고 공인입니다. 이 공인이 도덕적 수치심을 갖고 있다면 이를 하늘의 형벌, 천형으로 알고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어냐 하면 대통령인 최고 공인이 자살하면 그 나라의 품격, 국가 품격 브랜드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 가장 중요한 게 국격이고 국가 브랜드인데 그 걸 파괴하고 이 도덕적 수치심 때문에 국가에 대해 적대행위를 한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검찰수사로 수모를 당해 죽었으니까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이 검찰을 지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과해야 등원하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 타살이다, 그 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우리 나라는 소송공화국입니다. 1년에 700만건이나 됩니다. 1인당 인구 비례로 따지면 일본의 120배입니다. 그 중에서 검찰 기소 건수는 140만건이나 됩니다. 그럼 검찰에 기소되는 사람이 검찰에 불려가 수모를 당하면 다 자살하란 말입니까. 일반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 가면 대통령보다 더 수모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살하란 말이나, 원래 검찰 수사란 그렇게 받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세번째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우리 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자살 최고국가예요. 1년에 12,000여명, 하루에 33명이 스스로 죽고 있어요. 자살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 당시에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을 세웠어요. 그 거 세운 사람이 죽어 버렸어요. 도저히 자살해선 안 될 사람이 자살했는데 그 걸 보고 또 다른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이 “나도 그런 경우라면 자살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대중이란 전직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대통령인지, 조문객이 500만이다, 정확하게 그렇게 왔는지 모릅니다만, 아무튼 500만이라 합시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 국민이 5000만이라고 할 때 그 10분의 1입니다. 1960~70년대 미국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가운데에서 <Radicals> 즉 과격파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교수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그 시카고대학 교수의 분석결과로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나 Radicals는 전체 인구의 5~10%다, 그 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격파는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 시민국가에서 비시민인 사람, 그리고 이념이라든지 사상에 완전히 고정관념화한 생각을 가진 사람



대담 참석자. 우로부터 송복 교수, 이상우 교수, 최희조 편집위원, 조창화 회장, 문명호 부회장.

이 언제나 5~10%다, 그러니까 노무현의 죽음의 의미와 조문정국을 만든 조문객 숫자의 의미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李相禹 지난 2년간 일어난 사태에 대해 송 선생이 진단을 잘 해주셔서 모두 공감합니다. 정치란 기본약속이고 규칙입니다. 게임규칙을 빼놓고 하게 되면 무질서로 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난 2년 동안은 게임규칙을 의도적으로 깨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축구시합을 할 때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게임에 나가 게임규칙을 지킵니다. 한 쪽은 11명이야 하고 키퍼만 공에 손댈 수 있

선서했던 분이 그 규칙을 어기는데 앞장서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정치체계가 안정될 수 없는 거죠.

앞으로 우리 정치를 정상화 하려면 대한민국을 건국했을 때 내세운 국민적 컨센서스라고 하는 기본규칙 그 걸 지켜야 한다 이 거예요. 거기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탄압해도 되는 거죠. 그 건 독재가 아닙니다. 규칙을 어기고 거기서 돈을 주는 놈이 있으면 그 건 심판이 나가라고 해야지, 그 걸 보고 어떻게 그대로 게임을 합니까. 수습 실마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규칙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서로 존중하는 쪽으로 잡아가야지만 민주주의가 회복

지, 서너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김대중 자신이 반 민주적이다, 김대중이 민주적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반 민주적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다, 민주주의란 이 교수가 헌법체계에 의한 질서를 강조했는데 절차적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법치다, 이 거예요. 여기서 법치는 국가 기본질서와 법에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와 인권은 노태우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수준이요. 그러나 법치는 지금보다 노태우 때가 훨씬 확립돼 있었어요. 그것이 김대중 정권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정치개혁을 위해 낙천 낙선운동을 해라 하는 거였어요. 좌파정권, 좌파들의 특징이 법을 궁극적인 목적, 국가의 중요한 기본 목적으로 생각지 않고 자기들의 이용 수단으로 생각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좋다, 법을 무시해도 좋다는 거죠.

노무현 정권 때도 법치가 다 무너졌어요. 민주당 하는 거 보세요. 대통령이 노무현 죽음에 사과하지 않으면 등원하지 않겠다, 수사 검찰 징계하지 않으면 등원하지 않겠다, 미디어법 추진하면 등원하지 않겠다, 국회의원이 등원하지 않겠다 하고 그 걸 전직 대통령이 뒤에 앉아 계속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어요. 본인이 그 걸 민주주의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수사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예우를 해서 수사를 해선 안 되는 걸 수사했다, 나라도 그런 경우엔 당하겠다, 법치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법 위반시 수사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 하나가 반 민주적인데 자기는 민주적이라 합니다. 독재가 아닌

걸 자기 입장에서 독재라 하고 반 독재를 독재, 독재를 반 독재라 한다. 이를 정확히 붙이는 正名思想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반 민주적이고 교조주의적입니다. 敎條主義란 특정한 권위자의 敎義나 사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 현실을 무시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생각이라고 국어 사전에 나와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 말해요. 6·15선언, 그 거 따지고 보면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탐욕과 김정일의 핵무기 야욕의 합작품이죠. 낮은 단계의 연방제,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헌법체제와 완전히 다른 것, 그 걸 인정했어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우리 헌법체제와 완전히 다른 걸 내세운 6·15선언을 지지했어요. 그리고 우리 돈으로 8조5천억원을 김정일에게 바쳤어요. 70억 가까운 달러를 갖다 줬어요. 그 결과는 핵무기가 되고 미사일이 되지 않았어요. 북쪽이 무슨 돈이 있어요.

4면으로 이어집니다.

MB정부 정치적 리더십 빼곤 잘하는 편 더 이상 눈치보지 말고 가차없는 대응을

고 등등. 그런데 그걸 안 지키겠다고 하면 그 게임이 됩니까. 게임을 했는데 규칙대로 해서 내가 졌다 말예요. 지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청중 중에서 내 응원자가 많으니까 이걸 무효고 게임을 다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앞에서 grundnorum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전제로 하는 게임경쟁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특이한 사정이 뭐냐 하면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요. 친북 세력과 북한 사람들은 우리의 대한민국 규칙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는 축구시합이 싫다, 럭비를 하고 싶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선 축구경기를 하느냐, 이 걸 뒤집어엮고 럭비시합을 하겠다는 세력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청중 중에서 럭비를 구경하고 싶다는 사람이, 아까 송 선생이 말씀하신 Radical이 많지 않아요. 그들은 한번 뒤집어엮자고 하는 혁명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기본수칙을 어긴다는 말예요. 거기에 규칙을 지키겠다고

되지, 아니면 이 게 무슨 게임입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시청 앞에 나가서 과거에 약속한 건 다 아니라 하고 국민이 우리를 지지하니까 우리식으로 하겠다, 이 게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지지를 얻어 다음 선거에서 이겨서 해봐라, 그 게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그래서 송 선생 말씀대로 지난 2년 동안 특히 우리 나라에 혼란이 왔던 건 조직적으로 우리 체제의 기본을 뒤집어 엮으려는 세력들 때문에 사사건건 이런 혼란을 야기한 것이고 이 건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고 한국의 특수사정이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趙昌化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또 지지자도 많고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인데 독재 운운 할 수 있는 그루터기가...

李相禹 오히려 MB정권이 무능하다는 관에 무슨 독재입니까. 정반대죠. 자기 말을 안들으면 독재죠.

宋復 왜 독재라는 그런 발언을 하는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 대담

中道정책 左·右 절충식 추진은 절대 안돼

3면에서 이어집니다.

남쪽 돈 갖다 한 거지요. 거기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고 김정일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6·15선언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선동해요. 김대중 때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을 하고 노무현 때 1차 핵실험을 하고 1년뒤 2007년 10월 4일 평양에 가서 핵무기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어요. 햇볕정책이 완전 실패로 판명나니까 김대중이 심리적으로 패닉상태에 빠진 거예요. 독재란 무엇인지,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그 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李相禹 김대중과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 후퇴란 말이 왜 나왔나. 송 선생이 아주 잘 이야기하셨어요. 미국의 Freedom House가 해마다 각 나라의 민주화 정도를 체크하는 민주주의 지표가 있어요. 아시아 48개국에서 한국이 민주화 척도 1위로 나와 있어요. 노태우 때 직선제 개헌을 한 1987년 이후 제도로 보아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평화적 정권교체도 해왔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주의 후퇴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민주주의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와 레닌이 얘기했던 신민주주의, 과학적 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즉 북한식 민주주의, 말하자면 1인 1당 지배체제 독재를 만약 김대중 선생이 지향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은 후퇴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그 쪽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보면 발전이지 후퇴가 아니다, 오히려 참여가 너무 폭발해서 자유민주주의 기강이 흔들리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가치의 상대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적어도 국민이란 자격에서 동격이란 걸 서로 존중하고 동격을 인정받는 국민들 간에 자발적인 공존의 합의를 이루는 걸 말해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공존의 원칙을 지켜서 공존하자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거기에 비해 신민주주의, 북한민주주의는 그 게 아니고 진리가 발견되면 진리에 정부가 따르는 민주집중제 원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식 사고방식에서 보면 신민주주의는 가장 반민주적입니다. 지금 세계가 다 발전했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본다면, 그 사람들 머리 속에 들어가 있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인지, 그 건 명백해요. 김대중 선생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나온 성명을 보면 기가 찬 것이 우리 민주주의 후퇴

라고 했거든요. 일반 국민이 정확하게 몰라 같은 민주주의로 오해할까 싶어 그 게 제일 걱정입니다. 김대중 선생이나 민주당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의 합의로 대한민국 건국의 기본이념이 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후퇴란 거꾸로 자유민주주의의 전진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국민이 이것을 식별 안 해주니까 자꾸 혼란이 일어납니다. 대한언론인회가 언론인들이 모인 단체라 하는데 우리 언론에서도 국민을 교도하는 입장에서, 누구 편을 들라는 게 아니고 그런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설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민주주의 후퇴라고 할 때 민주주의는 그런 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는 이렇다, Freedom House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전 김진현 선생도 어디에다 글을 썼더라구요. 아시아 48개국 중 일본보다 한국이 민주주의 점수를 더 받았다는 사실에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래요. 무엇이 민주주의에 어긋나

걸 읽었습니다만 일본보다 언론자유, 정치적 평화적 정권교체,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과 자유 등이 훨씬 앞서 있다, 그런데 김대중과 민주당에서는 집회금지를 하니 독재다 해요. 촛불시위가 극심했던 작년 한해 총 시위 신청건수가 125,000건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시위금지는 300건이 안 돼 0.24%만 금지하고 나머지 12만 몇천 건은 허가해 자유로 하도록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금지 건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또 MBC PD수첩 수사를 둘러싸고 언론자유를 막는 독재라 하는데 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가 일반 국민의 정의와 달라요.

李相禹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자유란 기본 틀 안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면 체제 수호 차원에서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그 건 기본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 게 싫으면 대한민국을 떠나야지요. 대한민국 자체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해놓고 국민의 자격으로 참여했으면 그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축구를 하겠다고 월드컵

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부족 국가가 돼서 어떻게 물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할 것인가, 4대강을 살리자 하는데 국가발전에 관한 것은 다 악법이 돼 있어요. 민주주의 개념이 다르듯이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양정당의, 양진영의, 양파의 정파성만 자꾸 강화하고 의사소통은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혼란상태로 가면 失政이 되고 이명박 정권이 실패하는 것이니까 의도적 계획적으로 국가혼란을 통한 정권만회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李相禹 자유민주주의는 가치의 상대성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옳과 옳이 따로 있을 수 없어요. 이 사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right or wrong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북한식 민주주의에선 처음부터 right or wrong입니다. 북한에선 진리가 아니면 아니고, 다수가 결정하면 옳이고 거기에 어긋나면 옳입니다. 위에서 명령하는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지배자 한 사람이 결정한 건 옳이고 거기에 반대하면 옳입니다. 그 방식을 여기에 적용하는 게 우리 야당입니다. 강을 막는 게 좋은가, 아닌가는 국회에서 따져 보아야지요.

趙昌化 같은 민주주의를 놓고 다른 해석을 해 극도로 혼란을 야기 하고 정부 운영에서도 무조건 반대 의견을 내어 갈등, 분열구조를 형성시킵니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얼마전 저희 대한언론인회보에 '인지부조화(認知不調和)'란 말을 썼어요. 하나를 놓고 완전히 다른 모순된 언행을 하는 거죠. 부자를 증오하면서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전교조를 찬양하면서도 자기 자녀는 전교조에 맡기고 싶어하지 않고, 친북하면서 북한에 가서 살라고 하면 절대 안 가고, 반미를 하면서 미국을 선호하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송교수님이 5~10% 부류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는 이러한 현상이 1 : 9의 개념이 아니라 1 : 1로 반영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李相禹 시간이 걸리지만 교육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론은 지성인의 몫입니다. 지성인들은 옛날 선비들입니다. 선비정신이 다 깨져 혼란이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선비들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integrity예요. 바른 선비들이 나와서 언론인이나 학자건 간에 이 건 아니다, 이 건 이렇다, 김대중이 얘기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의도적으로 깨겠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비 선비들이 앞장서니까 혼란스런 겁니다. 지성인 품토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5면으로 이어집니다.

아시아 48개국중 한국이 民主化 1위 평가 10년집권 실패로 끝낸 左派는 패닉 상태

는 게 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제도로 돼 있어요. 정치인들이 그 걸 형용어 놓아서 그렇지 민주주의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요새 혼란의 책임은 여러 사람이 다 져야 하겠지만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다른 뜻으로 민주주의를 해석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거기에 언론이 무책임하게 그것을 밝혀주지 않은데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하는 겁니다.

宋復 김대중이나 민주당의 민주주의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분명 다릅니다. 민주주의 이름을 바로 붙여야 한다, 공자의 유명한 正名思想이 파괴됨으로써 소통이 안 돼 똑같은 민주주의를 말하는데 서로 다른 민주주의를 말하니까 김대중이 보면 독재고 민주당이 보면 독재고, 일반 국민이 보면 무어가 독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李相禹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대학을 나오고 정치학개론도 다 들었던 사람들 일 텐데 그 사람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후퇴라고 하고 서울광장에 나가 눈감고 앉았 있을 수 있을까, 양심이 있으면 말입니다.

宋復 건국 60년에 기적이라고 하면 산업화도 되고 민주화에도 성공했다, Freedom House 리포트를 보면 저도 그

겁에 나갔으면 축구규칙을 지켜야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규칙을 깨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지요. 자유라고 하면 무어든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지요.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네 체제에 도전하는 걸 놔두는 데가 있습니까. 독일의 경우 독일법, 독일 체제를 수호하는 법은 가차없어요. 다 내버려 두었다가 독일의 기본질서에 해당하는 데 대해서 한 발짝이라도 나오면 가차없이 발로 막 밟아요. 아무도 말 못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 합중국 기본질서에 도전하는 반 체제, 반 체제란 말도 잘 못 쓰고 있어요. 정부에 반대하는 것만 반 체제가 아닙니다. 기본질서에 반대하는 거, 이런 게 반 체제입니다. 반 체제를 허용하는 국가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이 혼동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부추기고 있고 그래서 조창화 선생이 처음에 말씀한대로 혼란의 극치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잡으려면 송 선생께서 正名思想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국민에게 제대로 다 알려주자, 이 건 언론인들이 시민계도에 관심을 갖고 해야 한다는 걸 당부드립니다. 언론 말고 기밀 곳이 없어요.

宋復 미디어법 개정도 악법이라 하는데 30년전의 미디어법 체계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하

아직도 親北세력이 政權 잡고 있습니까

나이가 여든 두 살이 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 일본 사람들 밑에서 기를 못피고 고생고생 살다가 하늘이 주신 해방을 맞았으나 국토가 분단되어 한 동안 김일성의 학정 하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탈출을 결심하고 평양에서 몰래 기차를 탔습니다. 원산에서 내려 하룻밤을 자고 다시 기차에 올라 철원까지 왔습니다. 철원에서 경기도 연천까지 와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안내자를 따라 숨을 죽이고 38선을 넘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논두렁길을 따라 남쪽으로 남쪽으로, “마의 38선”을 넘던 때의 나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공산치하에 살아본 나는 공산주의의 이론과 실재가 크게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는 앞으로 인류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역사는 한반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미래가 이 조그마한 땅에서 결판이 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침으로 야기된 동족상잔의 6·25는 일종의 비긴 전쟁이어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남북에 똑 같이 60년의 세월을 허락하면서 “최선을 다 해보라”는 당부의 말을 한 마디 던졌을 뿐입니다. 북은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고 건건사사 남쪽의 대한민국이 하는 일을 반대하고 방해했지만 남한은 고난을 무릅쓰고 이제 승리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북의 경제규모는 남의 20분의 1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남한과는 비교도 안되는 열등한 정치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북의 2,300만 동포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으며, 자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인권이 완전히 유린되고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김정일의 공화국은 손상된 자존심,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고자 엉뚱한 짓, 남이 못하는 짓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 밀수·밀매, 달러지폐 다량 위

조, 테러 수출 그리고 종당에는 핵무기 개발에까지 이어져 오늘의 인민공화국은 세계 모든 나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김정일 독재집단은 다만 몇 년이라도 더 살아남기 위해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김정일의 안중에는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않고 오직 강대국 미국이 있을 뿐인데, 그런 미국과 한판 승부를 겨루어 보겠다는 것은 망상을 지나 망상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특히 한반도에 사는 우리는 역사의 이 현장 목격자가 아닙니까.

북은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 하에서 무력에 의하지 않아도 적화통일이 가능하다는 무모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

김대중, 김정일을 ‘식견있는지도자’ 평가 盧 死後대한민국은 ‘노사모’ 독무대로

다. 김대중은 웃을 단정하게 입고 조공을 바치려 가는 속국의 사신처럼 김정일을 “알현”하기 위해 북으로 갔습니다. 김정일은 작업복 같은 꼴불견의 복장을 하고 한강을 끼고 있는 대한민국의 15대 대통령을 “접견”하였습니다. 꼴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로 하나 신분으로 하나 김정일은 김대중을 선배로, 어른으로 공손히 대접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김대중은 왜 2000년 6월 12일에 떠난다고 공표하고 나서 북행을 하루 늦추었습니까.

일정을 조절할 부분이 있어서 그 날 떠나지 못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김정일의 은행구좌에 약속한 금

특 | 별 | 기 | 고

김 동 길

· 연세대 명예 교수



렇게 보였다면 김대중 눈에 무언가 썬 거지, 김정일은 결코 믿을 만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나는 김정일을 가까이 두고 가르쳤다는 황장엽 씨의 말이 오히려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은 머리가 빨리 돌긴 하지만 나쁘게 도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 김대중은 김정일의 비서실 홍보담당

역의 달러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입국불허라 하여 하루 늦추었다는 말을 뒤에 들은 바 있습니다. 6·15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휴전선을 넘어 남쪽에 들어 서면서부터 김대중은 거짓말로 일관하였습니다. “만나 보았더니 김정일 위원장은 식견 있는 지도자였다”는 말부터가 거짓말입니다. 그

이지요. 그런데 이명박이 청와대의 주인이 되긴 했지만 김대중과 죽은 노무현이 계속 안방을 차지하고 내주지 않아 이명박은 벌써 1년반 동안 청와대의 문칸방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명박에게는 촛불시위를 막을 만한 힘도 없었고 촛불을 끌만한 입김도 없었습니다.

“용산 철거민 참극”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의 당시 청장 김석기의 목을 베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노무현이 자살하고 벌어진 사태를 잘 보셨지요. 정부는 있지만 정권은 그 손에 없습니다. 도하의 신문이 그리고 방송 3사가 모두 그놈들 수중에 있음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심어진 그자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노사모’의 의견과 행태만을 보도하고 나를 비롯한 많은 반노사모 인사들의 모습이나 발언은 전혀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자살 소동 이후의 대한민국은 마치 노사모들의 독무대가 되었습니다. 야당의 국회의원 몇 사람은 지난 6월 9일 서울 시청앞 잔디밭에 불법으로 들어앉아 비를 죽죽 맞으면서 시위를 벌이는데, 거기에 걸린 플래카드에는 “광장 없이 민주 없다! 서울 광장을 열어라”라고 쓰여 있으니, 솔직히 따져 봅시다. 광장이 없이는 민주주의도 민주당도 없다는 말입니까. 국회의사당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아직도 반미·친북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 불법과 난동을 감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적화통일의 길을 예비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분향하고 헌화하려고 시청 앞 광장에 모인 노사모를 경찰은 17만명 정도 된다고 하고 노사모 자신은 40만~50만이 된다고 하니 그 숫자를 100만으로 잡는 다 해도, 김대중·노무현에 염증을 느껴 정권교체에 참여한 유권자는 1,100만이 넘는다니, 100만 대 1,100만은 게임이 안됩니다. 국민 여러분, 두고 봅시다. 누가 이기나. [\[필자주\]](#)

4면에서 이어집니다.

宋 復 중장기적 시민교육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작년에 건국 60주년을 해보니까 건국 60주년에 참여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거부하고 건국 60년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현 정권이 생각하는 걸 성공시켜 나라를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중도정책, 통합정책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中道란 좌와 우 중에서 가운데 정책이 아니라 도리에 맞는 정책을 말합니다. 中庸에 나오는 極高明 상태로 가야 중도라는 겁니다. 최고로 높고 최고로 밝은 상태에 갔을 때 무엇이 도리에 맞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야 바랄 수 있겠습니까마는 지

금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이 가장 시대상황에 맞는 것인지,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인지, 남은 기간에 성공시켜야만이 정부도 성공한 정부가 되고 국민도 성공한 나라에 사는 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李相禹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선서한 게 됩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체제수호 차원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이 걸 안하고 눈치보니까 이 꼴이 된다, 예를 들어 교과서 문제입니다. 국민이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데 교과서가 좌파 내용 일색입니다. 이 걸 놓고 어떻게 시민교육을 합니까. 대한민국 체제수호에 어긋나니까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전부 고치라고 명령하고 반대하더라도 밀고 나갔어야

대통령 직무를 다하는 건데 반대저항에 눈치보느라고 안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과 대한민국을 뒤집어엎자는 걸 섞어서 이 걸 어떻게 중도라 합니까. 진보와 보수란 말도 잘 못 쓰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이 보수이지만 대한민국을 뒤집어엎으려는 사람은 진보가 아니고 파괴자일 뿐입니다. 김동길 교수가 우리 나라에 좌·우가 어디에 있고 진보·보수가 어디 있느냐고 일갈 했어요. 우리 나라에는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사람들과 뒤집어엎자는 사람 둘 밖에는 없는데 이걸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방해가 되고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검찰도 좋고 경찰도 좋고 정책이나

정부부처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학생들을 오도하는 전교조도 해체해야 합니다. 그 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사람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잘못 뵈었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간접민주주의인 정당정치를 하려면 여당은 대통령과 같이 가야 합니다. 당대표와 대통령을 갈라 놓았는데 있을 수 없어요. 그걸 뜯어고쳐야 합니다. ‘크라시’도 없다는 건 속에 통치구조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조직 자체가 오합지졸이고 정부가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 걸 빨리 3년내 잡아야 할 텐데 이대로 가다가 3년 뒤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필자주\]](#)

左派정권 對北지원정책 司正하라

한국 사람은 躁鬱症이 심하다. 그래서 西洋人들은 한국을 “東洋의 아일랜드”라고 말한다. 신이 나면 월드컵 4위도 하지만 일단 조울증이 발동하면 완전히 달라진다. 다만 우울증 환자나 자살자가 일본보다 적은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중에 하나는 ‘무질서’라고 본다. 무질서를 통해 울화를 발산하는 것이다. 극히 한국적인 치료방법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찰머스 존슨(日本學의 미국 학자)도 “한국 사람은 아무도 참지 않는다”면서 극히 自制的인 일본인과 성격비교를 한 적이 있다. 이 무질서에는 천하의 정치꾼 袁世凱도 손을 여러 번 들었다. 소위 ‘監國’으로서 조선왕을 쥐락펴락하던 그도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이홍장에게 여러 번 辭意를 표명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중심도 원칙도 약속도 없다는 것이 袁의 고민이었다.

한국인의 조울증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대통령이 朴正熙 대통령과 盧武鉉 대통령이다. 공화당 시절 金炯孝 박사(철학)는 한국문화는 ‘신바람의 문화’라고 규정한 바 있다. 신이 나면 수출목포도 달성하고 ‘새마을 노래’를 부르며 農路를 확장했다. 박정희는 이 국민의 어디를 자극하면 신을 내는지 잘 알았던 것이다. 비록 자살로 끝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가히 感性소통의 ‘鬼才’임을 증명했다. “서울대 나온 사람만 사람입니까” “강남에 살아야 인간입니까” “反美 좀 하면 안 됩니까”라고 뇌까렸다. 효과가 있었다. 서울대 안 나온 사람이 나온 사람보다 많을 것이고,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이 자연이다. 6·25를 겪지 않은 세대에게 외국 군대의 주둔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비록 그의 말은 政策의 現實에서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되고 또 다른 많은 사람의 反感을 샀지만 그의 감성적 발

언은 서민의 가슴 속에 훈훈한 ‘추억’으로 남아버렸다. 그것이 자살 이후의 신드롬으로 나타났다. 마치 죽은 제갈량이 사마의를 멈춰거리게 했듯이. 그러나 노무현에게는 感性 말고 또 다른,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強點이 있었다. 즉 그는 戰略과 戰術에도 능했다. 또 초장부터 자기의 갈 길을 밝혔다. 탄핵사태를 방지했다가 끝내 逆轉시켰다. 어쩌면 자살도 사태 反轉을 위한 그 나름의 勝負手였는지도 모른다. 좀 점잖지 못한 언사를 사용하긴 했으나 前線형성에 주도권을 행사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이 형성한 전선을 따라 오늘은 이리 뛰고 내일은 저리 뛰는 세월을 보냈다.

時 論



金 哲

· 본보 편집위원
·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강사

는데, 그것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명박 씨의 대통령 당선을 보수 우파세력은 그들의 ‘메시아’가 강림한 것으로 보았다. 이제 보니 그것은 착시현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에 10년 이상된 좌파의 청산을 정권의 綱領으로 우선 선언했어야 했다. 이명박 정권의 로드맵을 밝혔어야 했다. 그런데 나온 것이

라 條目에 해당하는 ‘實用主義’였다. 大綱선언을 통해 분위기를 쇠신한 다음 좌파정권의 과오를 폭로하고, 좌파가 구축한 체제와 법령을 정비했어야 했다. 그런 가운데 박연차도 수사해야 했겠지만, 그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상위

‘퍼주기’를 하고 평화를 샀던 것을 생각나게 한다. 사실 한반도에서 不安한 平和나마 유지된 것은 6·15선언 때문이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이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일이다.

이것을 司正했다면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자발적 각성을 통해 분위기 쇠신에 1차 성공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명박 정권은 주체적으로 政治前線을 구축하는데 先手를 잡았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모두 高成長을 했던 시기에 좌파정책으로 허송세월했다. 그런데도 그는 서민과의 감성소통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이미지는 土建業 외에는 별 것이 없다. 토건업이 별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感性的 특점이 全無하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前線구축의 先手는 좌파가 장악했다. 이명박 정권은 오늘은 촛불, 내일은 노무현 장례 등 좌파가 구축한 前線에서 방어만 하고 있다. 그 방어력도 매우 신통치 않다.

이명박 정권은 정책구현을 위한 자기의 ‘道具’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의 구상을 立法해야 할 한나라당은 야당을 제압 못하는 것은 물론, 제 뒤통수 주체 못하고 있다. 親朴이니 뭐니 해서 국민의 짜증만 돋우고 있다. 이 모든 것이 黨權과 大權의 분리가 곧 민주주의라는 책상물림들의 얘기를

그대로 믿은 결과다. 한국적 정치풍토에서 黨權(공천권, 당직임면권)을 갖지 않은 대통령을 소속 의원들이 무서워할 리 없고 다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난장판이 될 것이다. 박정희같은 강력한 지도자도 10월유신 과정에서 한 때 공화당 총재직을 내놓을까 하다가 취소했다. 카리스마 넘치는 兩金도 이 부분에는 지극히 조심스러웠다. 하물며 이명박 대통령으로서의 말할 나위가 없다. 猛省을 촉구한다. [4]

MB 정부 로드맵 분명히 안밝힌게 실수 大權 · 黨權 분리도 政治혼란의 원인으로

조울증에서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대조적인 이명박 대통령의 政治的 無能을 얘기하기 위해서다. 그는 우선 感性의 교환능력이 제로에 가깝다. 노무현처럼 평생 정치판을 누벼본 적이 없으니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러면 기업인 출신다운 과감성과 효율성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다. 국가통치의 효율성은 기업과 달리 월급이나 성과급이 아니라 政治力이 수반되어야 하

에 있는 좌파정책에 대한 司正에 착수했어야 했다.

예를 들어 北核이다. 정부의 집계 결과 좌파정권은 북한에 현금 29억달러를 지원했다. 현물까지 합치면 69억5,950만달러로 나타났다. 이 돈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당연히 의심해 볼만하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는데 5억~6억 달러, 핵무기 개발에 8억~9억 달러를 썼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이는 과거 중국의 南宋이 금나라에

우리가 지금 ‘독재국가’에 살고 있나

“제 2의 민주항쟁으로 살인마 이명박을 내치자”

“이명박 죽일 놈” “이명박 개새끼”
오늘의 대한민국이 ‘독재국가’인가...

전직 대통령(DJ)이 공개강연에서 “독재자에게 아부하지 말자.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와 여당과 야당도 때아닌 이 독재논란에 열을 올리며 싸웠다. 이쯤 되면 보통국민들로서는 “지금 우리가 독재시대에 산다는 건가”라고 헛갈릴 만도 한 상황이다. 그럼 과연 대한민국은 진짜로 독재국가 상태에 있는 걸까. 야당과 좌파 단체들은 서울광장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허가도 안받고 개최했다. 경찰은 ‘불법집회’로 규정하고도 눈 뜨고 구경만 했다.

아니 오히려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게 고함치고 샷대질하고, 경찰은 눈치만 살폈다. 방송사들은 경찰이 방패만

들면 달려와서 ‘감시’의 카메라를 경찰쪽으로 들이댔다. 또 정부가 사실상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한 공중과 TV는 그날 메인뉴스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성토했는 국민들 10만여명이 서울광장에 모였다”고 경찰추산 2만명 대신 시위 주최측 집회규모를 소개하면서 정부 비판 논조의 기사 6가지를 잇달아 보도했다. 반면 “불법 폭력은 안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단신으로 짧게 전했다.

이처럼 공중과 케이블TV 뉴스가 반정부 기조의 방송을 종일 송출하고 있다.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는 ‘땡 전 뉴스’라는 것을 매일 틀어대던 방송사가 이렇게 맘 놓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야권과 좌파 단체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천 상 기

· 본회 회우
· 경기대 초빙교수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클럽 고문

여전히 독재국가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칙도 무너졌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007년 2월 열린우리당 의장일 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다수결 원칙에 승복해야 하는 것이 의회주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170석의 절대 과반수를 갖고 있다. 과거처럼 체육관 선거로 얻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법이 규정하는 임시국회 개원 날짜가 20여일 지나도 지금 민주당은 ‘5대 선결조건’을 내세우며 국회에 등원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심지어 초·재선 의원 18

명은 국회 개회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밤샘 농성을 시작했다

한나라당이 단독 국회 강행방침을 밝히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최대 쟁점 법안인 미디어관계법 처리를 놓고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이어 3차 법안전쟁에 돌입한 양상이다. 다수 여당에서 소수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것 뿐인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의회주의에 대한 민주당의 소신이 달라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일에 조건을 다는 정당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거기다 한나라당은 지난 재·보선에서 0 대 5로 지고 다가오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전패를 걱정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DJ는 ‘말’ 보다 ‘침묵’ 이 國益 도움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침묵은 금이라고 입을 막게 하고 싶지는 않다. 국가 원수를 지낸 국가 원로로서 나라를 위해 충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기가 적합해야 하고 내용이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 위에 국가 원로로서의 품위와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한 쪽 가치관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무게를 지녀야 한다. 특정 이념에 치우친 직업적인 시위꾼보다 침묵하는 다수의 견해를 대변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낸 국가 원로라면 불에 기름을 부어 위기를 더욱 확산시키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 이념 대립이 심화되고 국론이 분열된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국가 원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김 전 대통령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 남북 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에서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면서 국민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강연을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독재자가 나왔을 때 반드시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성공시켰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세 대통령이 있었지만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했다. 선거 때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말고, 바른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만일 현재와 같은 길을 간다면 국민도 정부도 모두 불행할 것이라는 걸 확실한다.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의 말은 작심한 듯 더 나아갔다. “독재자에게 고개 숙이고 아부하지 말자. 이 땅에 독재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빈부 격차가 사상 최악으로 심해졌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이 돼 자유,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지키는데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 피 땀 흘린 심정으로 말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고 말했다.

평범한 시민인 내가 들어도 국가 원수를 지낸 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부와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선동 정치가의 말이다. 마치 19세기 말 칼 마르크스의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피로써 부르주아를 쳐부수자”는 ‘공산당 선언’을 연상시킨다. 수많은 정치적 역경을 넘고 감옥살이 등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섭렵하고 대통령까지 지낸 국가 원로가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이념

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대에 이런 막말밖에 할 수 없는가 하는 서글픔이 앞선다. 국가 원로라면 이런 선동과 대결의 말보다 통합과 화합의 대안을 내놓아야 했다. 대안이 없다면 차라리 침묵이 더 존경 받는다.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은 얼마 전 캐나다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과의 대담 강연에서 “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삼가게 전 대통령의 미덕이다”고 말하면서 버락 오바마 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사회자의 충고 권유를 사양했다.

나는 이 대통령이나 그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를 독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첫 개각 등 출범부터 실정

時 論



김 화

· 본보 편집위원
· 데일리 리뷰 고문

국회의원들에게 “국회로 들어가 민생부터 챙기면서 의사당 안에서 투쟁하라”고 대의(大義)를 당부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낸 국가 원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김 전 대통령의 말은 듣기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력혁명을 부추기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국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지만 체육관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살아오고 부자가 된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모범생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아직까지는 헌법에 위반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부인 권양숙씨 부친의 부

되고 감옥에 간 일은 잊었는지 묻고 싶다. 현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정치역정을 돌아보고 자신의 몸가짐을 성찰하는게 우선이다.

남북문제만 해도 좌과정권 10년 동안 무려 13조원이란 천문학적인 현금이 북한 김정일 정권으로 들어갔는데 그 돈이 북한 주민을 위해서 쓰여졌는지 묻고 싶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 핵 개발은 없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는데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번 강연에서 “북한이 극단적인 핵개발까지 끌고 간 것은 절대 지지할 수 없다”고 했지만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격이다.

김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고초를 겪을 때 문상객의 10분의 1인 50만 명만이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 확실한 증거없이 정신적 타격을 주고 수치를 줄 수 없다고 했으면 노 전 대통령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말은 꺼져가는 조문 정국의 불씨를 다시 살리려는 정략적인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문 정국을 거리정치로 확산시키려는 의도라면 대통령을 지낸 국가 원로로서의 참피한 모습이다.

김 전 대통령은 오로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과 정치지향점이 다른 보수 세력의 김종

필 씨가 이끈 자민련과 제휴했으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뒷돈을 주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으며, 국정원으로 하여금 정치사찰을 하도록 했다. 연평해전으로 대한민국 장병이 죽어가는 데도 월드컵 경기를 웃으며 관람하고 있었다. 이런 대통령이었던 분이 이념 대결이 첨예화하고 극도로 혼돈된 시기에 다시 입을 열고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으니 젊은 시절의 장기인 정치공작의 향수가 다시 살아나지 않고는 이해가 안되는 발언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고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분이 아직도 채우지 못한 영화가 남아 있습니까. 이젠 제발 침묵하십시오. 김 전 대통령께서는 말할 때보다 침묵할 때 더 아름답고 더 존경받습니다.

때로는 국가 원로의 침묵이 국익이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김 전 대통령은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필자]

국가원수 지낸 사람이 국민선동 하다니 거리政治 확산시키려는 의도 어디있나

을 거듭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공포분위기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론은 마음껏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며, 좌파 시민단체와 야당은 100일 동안 밤이면 서울 중심가를 점령하며 경찰을 구타하고 경찰차에 불을 지르며 폭력시위를 감행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좌파 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연합해서 서울광장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퇴진”을 외치지 않았는가. 이런 집회가 북한 김정일 정권하에서는 가능하겠는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연에서 한 “독재자에게 고개 숙이고 아부하지 말자”라는 말은 북한 주민에게 해야 할 말이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3대째 권력세습에 혈안이 되어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정치수용소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선 민주주의와 인권을 한 번이라도 언급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김 전 대통령은 독재정권에 투쟁하라는 분열 선동보다는 야당

역 경력이 밝혀지자 “그럼 아내를 버리라는 겁니까” 하고 항변했듯이 이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국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임기 전에 쫓아내자는 겁니까”라고 김 전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빈부 격차만 해도 원인제공은 김 전 대통령이 재임시 인위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신축 규제를 일시에 풀어버려 강남 집값을 폭등시켰고 또 카드대란을 일으켜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데 있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중 실정은 선반 위에 올려놓고 이 대통령 탓만 하고 있다. 그리고 김 전 대통령에게 ‘민주주의’ ‘자유’ ‘양심’ ‘바른 정당’ ‘나쁜 정당’의 분별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선’과 ‘악’의 가치기준이 무엇인지도 묻고 싶다. 자신의 정치노선에 적합하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인가. 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국회의원 돈 공천’의 효시가 누구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 재임시 아들이 ‘홍 트리오’가 비리 혐의로 구속

‘의회주의’ 실종… 政治 목적 위해 민중선동 펼쳐

6면에서 이어집니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민주주의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데도 독재국가라니...

이러한데도 야권에선 현 정부를 독재로 규정하고 반 독재투쟁과 정권퇴진 운동으로까지 이어가려 하고 있다. 좌파 단체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을 시작한다”고 했고,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 정권은 종자가 틀려 먹었다. 발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수환 전 국회의장은 “독재 운운은 코멘트할 가치도 없는 문제”라며 “시청 앞을 시위대가 점령하고 TV만 켜면 반 정부 목소리가 나오는데 독재는 무슨 독재냐.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중봉기를 선동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87년 6·10민주항쟁 당시 국민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를 지낸 김명운 전 의원도 “나도 야당 오래 했지만 야당이 정권을 교체할 능력을 갖출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의 반 정부투쟁 선동정치는 곤란하다”며 “여당이 국회를 막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회를 놔두고 서울광장에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는 ‘북한의 도발’이나 ‘빨갱이’ 같은 가공의 위협을 만들어 놓고 국민을 겁주며 선동하는 것 역시 그 같은 군사독재 수법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독재국가’ 논란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맞은 것이다. [필자]

한라산에서 平壤까지

“국방군 동무들… 100m에 한사람 200m에 두사람 꼴로 보초나 서고 있는 당신들이 우리 백만대군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한 줌도 안되는 李XX 도당을 위해 아까운 청춘의 생명을 버리겠는가? 어서 인민의 품으로 넘어 오세요. 30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 30분 춘천 서북방 38선 남쪽 지암리 고지



김 집

- 본회 회우
- 전 동양방송 사회부장
- 전 KBS 전문위원

를 향해 북한 공산군이 화성기로 우리 국군에게 투항을 요구하는 소리를 육군 일등병인 나는 듣고 있었다. 38선이 무너지는 전쟁발발 신호가 분명했다.

“20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5분 남았다…”고 카운트다운을 하며 투항을 재촉하더니 새벽 4시 정각에 포탄이 넘어왔다. 우리 후방의 예비진지인 콘크리트 토치카에 명중했다. 이것은 큰 전쟁이다. 창군 이래 공비토벌 작전경험 뿐인 우리 국군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기습 공격을 당하는 6·25전쟁의 시작이다.

나는 1948년 7월 소련 군정하의 북한에서 반소학생사건 관련자로 수배를 받게 되자 부모 형제와 이별하고 단신으로 38선을 넘어 온 월남자로서 당시 반공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서북청년’이었다. 월남한지 3개월도 채 안된 그해 10월 여순반란사건이 터졌다.

대한민국 수립을 위한 5·10선거를 반대하는 제주 4·3무장폭동을 진압하

이상의 병력은 대대장의 반역에 격분하여 북한군과 격전 끝에 탈출해온 사건이다.

춘천에 도착한 우리는 8연대 제1대대 막사를 점거하고 태백산 공비토벌을 하고 온 제7연대의 제2대대로 편입돼 38선 경비를 맡게 되었다.

여기서 일부 ‘서북청년’ 동지들은 가족이 월남해왔기 때문에 제대를 하게 되었으나 독신인 나는 연대본부로 차출되어 약간의 군사정보교육을 받고 38선 상 아군진지가 없는 공백지대 산간마을에 파견되어 적정 첩보활동을 하다가 50년 1월 북한 유격대의 습격을 받고 부상당해 4개월 넘게 치료 끝에 서울 왕래가 쉬운 가평의 11중대로 발령되어 제대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평에는 7연대 10중대와 11중대가 모진강 서쪽 지암리에서 포천 경계선까지의 38선 경계임무를 맡고 있었기에 나는 불편한 몸이지만 6·25기습남침 전쟁이 시작되는 현장을 지켜보게 되었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6·25전쟁이 시작되고 51년 10월 내금강 입구가 바라보이는 고지에서 부상을 당해 제대를 하게 되기까지의 일들이 80이 넘는 내 머릿속에서 아직도 주마등처럼 돌아가는 것을 지울 수가 없다.

첫째, 나는 너무나도 많은 전우들이

끝나지 않은 전쟁

포병 16대대복무 4년

나는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춘천사범학교 3학년 졸업반에 재학 중이었다. 교생실습 준비를 위해 일요일임에도 학교에 등교하니 배속장교가 “심상치 않다. 전쟁이 일어난 것 같다”면서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가운데 시내에 들어서니 피난민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



박 기 병

- 본회 회우
- 전 춘천 MBC 사장
- GTB강원민방 상임고문

다음날 등교하니 포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포병부대(포병 16대대)의 포탄을 나르는 일을 하라는 것이었다. 춘사(春師) 학생들은 남춘천 역전에 있는 탄약고에서 포탄을 포진지까지 날랐다. 이틀째 되는 6월 27일 인민군의 포탄이 국군의 포진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사태가 심상치 않자 학교 당국은 학생들에게 피난가라고 해서 나는 동료학생 2명과 정봉득(鄭鳳得)선생님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 하늘 아래 첫 마을이라고 하는 인제군 남면 정자리(南面 亭子里)에서 피난생활을 했다. 국군이 북진하는 10월 14일께 춘천에서 군번 없는 유격대에 입대, 퇴각하는 인민군을 격퇴하는 임무를 띠고 대전차포

다. 포병은 보병의 지원사격 요청이 있을때 포신이 발정계 되도록 집중 지원사격을 한다. 전포대 요원은 청력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인민군은 국군복장으로 위장까지 하여 심리전을 펼쳤다. 후퇴하던 국군은 인제(麟蹄) 남면(南面) 관대리(冠岱里)에 집결 전열을 정비했고 어론리(於論里)에 포진지를 구축하여

집중 포화로 남하하는 중공군을 저지했다. 관대리 앞산 560고지에 전방관측소가 있었는데, 이 관측소에는 포병 관측장교와 통신병이 근무하고 있었다. 통신병의 근무교대가 되어 내가 관측소에 올라가 하는데 식중독으로 나 대신 최병림(崔炳林) 전우가 올라가 적의 포로가 되어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다.

관대리, 어론리 전투에서도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려 후퇴, 인제군(麟蹄郡) 상남면(上南面)쪽으로 이동해서 홍천군(洪川郡) 내면(內面) 현리(峴里)에 집결했다. 이 때 현리에는 3군단 CP와 3사단 7사단 병력이 집결하고 있었는데 인제 상탑지구 전투에서 국군이 후퇴하

서북 청년단으로 제주 폭동 진압 참가 적정 첩보 활동중 적의 기습으로 부상

기 위해 출동하게 된 여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서북청년’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대에도 친소 좌익분자들이 많아 반란을 일으키는 판에 우리가 고학생 놀음이나 하며 편안히 공부할 수 있겠는가?

4·3폭동은 우리가 진압을 해야지 누가 하겠느냐고 이심전심 결속하게 되고 국방부 쪽에서도 4·3폭동만 완전 진압하게 되면 제대시켜 준다는 말이 흘러나와 제주도로 가서 단체로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중학생 시절 일본 군국주의 군사훈련을 받은 군사상식만으로 총을 잡고 한라산 공비토벌작전에 투입되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입산공비가 대량 귀순을 하게 되어 1949년 5월 10일에 제주도는 1년 늦은 5·10선거를 하게 되어 우리도 제주읍(당시에는 읍)에서 투표를 하고나서 육지로 돌아오는 배를 타게 되었다. 이 때 “이동중인 부대는 춘천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 목포에서 철도 화물열차로 밤새 춘천으로 가게 되었다.

춘천과 홍천에서는 제8연대 제1대대(춘천)와 제2대대(홍천)가 좌익분자이던 대대장(포무원 소령과 강태무 소령)의 인솔로 월북을 하는 대사건이 있는 직후였다. 간첩을 통해 북한쪽과 짜고 야간훈련이니, 작전명령이라고 속여 대원들을 38선 이북으로 끌고 갔으나 반

쓸어지는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남은 것. 중대장이 14명이나 전사, 부상, 실종 등으로 바뀌었으나 첫 중대장 6기생 평남 용강출신 이성훈과 마지막 중대장 보병학교생 전남 광주출신 정성영만을 기억하며 만나보고 싶은 인물.

둘째, 우리 부대는 후퇴를 하면서도 사기가 왕성했다는 것. 미군이 참전을 하고 제트전투기가 비록 우리를 오폭할 망정 우리에게 승리를 확신시켜 준 일.

셋째, 우리 7연대가 음성 무곡리에서 충주 주덕리에 이르는 도로에서 승리에 도취되어 내려오는 적군을 산에 매복했다가 기습을 하여 야포와 장갑차와 서울에서 약탈한 온갖 물품을 실은 보급차량 수십량을 노획한 일. 우리 포병 16대대가 노획한 그 포로 적을 공격하며 상글병글하던 일.

넷째, 이승만 대통령이 연대장 이하 전 장병에게 1계급 특진 명령을 한 일.

다섯째, 우리가 북진하여 서부전선에서 평양을 점령한 50년 10월 19일 낮 12시 우리 부대는 평양에서 100리 북쪽의 순천에 진격했는데 순천 북쪽 언덕에는 미군 낙하산부대가 탱크와 함께 내리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진격하는 우리의 좌우측 들판에는 평양서 후퇴해온 인민군 병사들이 그들의 방한복을 흰색 쪽으로 뒤집어 입고 총을 버리고 우리에게 손을 들어 만세를 불러 주던 일. 이때 나에게서는 조국통일을 확신하는 감

자원입대… 강원도 일대 전투 모두 참가 적 포위망속 13시간 사투끝에 탈출도

1문을 가지고 중대 병력으로 양구지구 전투에 투입됐다.

양구에서 3일간 주둔하면서 인민군 패잔병을 소탕하는 작전중 해안면(亥安面)으로 퇴각하던 인민군이 양구(楊口) 시내를 포위 주변 도로를 모두 장악, 공세를 취하여 후퇴가 불가피했다. 나는 양구가 고향이어서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서쪽 사명산을 넘어 수인면(水仁面)을 거쳐 춘천으로 후퇴할 수 있었다. 춘천에서 부대 재편성을 위해 머물고 있을 때 포병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보고 춘천사범학교 동기생 10여명과 함께 재편성 중인 포병 16대대에 자원 입대했다. 1950년 12월 17일이었다. 군번은 0551137.

재편성한 포병 16대대는 1950년 12월 24일께 춘천으로 출동, 보병 7사단을 지원하게 됐다. 나는 통신병으로 대대와 포대(중대)간의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임무였다. 춘천 지구에서 1주일째 북괴군과 대치상태에서 전투중 1951년 1·4후퇴때 포병 16대대는 홍천(洪川) 횡성(橫城) 원주(原州) 제천(堤川) 영주(榮州) 봉화(奉化)까지 물러나 춘양(春陽)에 주둔, 새로운 전선을 구축했

동이 솟았다.

여섯째, 압록강 초산에 진격한 우리 부대원들이 통일을 실행하며 고향에 가서 부모를 만나게 된다고 들떠 있던 일.

면서 현리에 집결하고 있던 국군이 포위망에 걸렸다. 13시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3사단이 퇴로를 열어주어 탈출할 수 있었다. 포병 16대대는 미 24사단의 지원사격 임무를 띠고 방산면(方山面) 송현리(松峴里)로 이동, 백석산(白石山) 전투에 투입됐다. 이어서 인접한 오미리(五尾里)전투에서도 승전보를 올린 포병 16대대는 방산면(方山面) 상건배리(上乾背里)로 이동, 피의 능선과 가칠봉에서 지원부대로 전투에 임했다.

곧 휴전을 위한 정전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도는 가운데 51년 10월 중순 금강산 가는 길모퉁이라고 하는 문등리(文登里)로 이동, 방어적인 전투를 하고 있을 무렵, 포병을 증강한다는 방침에 따라 광주(光州) 포병학교의 포병창설 기간요원으로 차출되어 나주군 평동(羅州郡 平洞)에서 제15포병단을 창설하여 1952년 3월 중순 화천(華川)으로 이동, 2군단 포병사령부에 배치, 김화군(金化郡) 어음산 전투에 투입되었다. 이 때 포병사령관은 박정희(朴正熙) 준장(전 대통령)이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고 1954년 10월 10일 4년간의 군생활을 마감했다.☞

일곱…여덟…아홉…열…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는 고향을 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서북청년’ 동지들이 휴전 소식에 맥이 풀려 한숨 짓던 일.☞

내가 겪은 6·25

신병 훈련 10일에 참전

나는 50년 9·28 수복 직후 서울에서 고교 2학년 재학중 만 17세의 나이로 군에 입대했다. 대구에 있던 훈련소에서 10여일간의 짧은 신병교육을 마치고 곧바로 최전방 부대(육군 보병 7사단 3연대 3대대 10중대)에 배치됐다. 춘천 북방에 이르자 벌써 포성이 들려오고, 끔찍 얼은 주먹밥 한 덩어리를 받아먹고 곧바로 전투에 투입되었다.



송두빈

- 본회 회우
- 전 내외경제 편집국장
- 전 한라그룹 상임고문

중동면 녹전리까지 무려 14일간에 걸친 주야간 행군을 강행했다.

나는 신병이기 때문에 내 배낭과 M1소총 외에도 고참 인사계의 배낭까지 함께 짊어지게 되었다. 밤에 잠도 못자고 발바닥이 온통 부르텔지만 낙오되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해 행군 대열을 따랐다.

남쪽으로 후퇴하던 도중

제천과 단양의 중간지점에서 아군의 퇴로를 막기 위해 영월 주천(酒川)일대에 1개 중대 규모의 적군이 산악지대를 타고 침투했으니 이를 소탕하라는 명령을 받고 주천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게 웬 일인가. 적정 파악이 잘못되어 1개 중대 규모라던 적군은 1개 군단 병력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부대의 3대대 11중대는 이 곳에서 적과 교전하다 완전 포위되어 100여명중 겨우 20여명만 살아남은 막심한 병력 손실을 입었다.

전 부대원이 야간에 강행군할 때면 너무도 피로에 지친 데다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서로 단단히 팔짱을 끼고 “이번에는 내가 잠시 눈을 붙인다”고

17세대 入隊… 총도 제대로 못쏘며 참전 걸으면서 잠자… 적 기습에 낙오되기도

는 채로 받아 통신 와이어줄로 엮어서 들고 나왔던 것이다. 신병인 탓으로 공이치기가 부러졌는지 확인조차 못해서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었다.

벌써 전투가 치열해져 앞서 공격에 나섰다가 부상당한 동료 병사의 총을 겨우 얻어 사격을 계속하면서 목표했던 고지를 점령하고 그날 밤을 참호 속에서 지냈다. 눈이 너무도 많이 내려 온 산하가 하얗게 뒤덮였고 아군과 적군이 흰 방한복을 입은채 호 속에서 뒤범벅이 되었다. 날이 밝을 무렵 상대를 식별할 수가 없어, 모자를 벗겨 까까중 머리면 적군이고 스포츠 머리면 아군임을 알고 백병전을 벌이는 아슬아슬한 장면도 겪었다.

목표 고지를 점령, 진지를 우군에게 교대해 주고 춘천으로 돌아오니 춘천 시민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했다.

해가 바뀌어 51년 1월 1일 새해 아침이 밝았다.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전부대 출동이라나다. 완전 무장한 채로 집합하자 즉시 이동이 시작되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중공군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38선 일대에서 대공세를 퍼와서 아군이 일제히 후퇴하게 된 것이다. 이른바 ‘1·4후퇴’(서울이 1월 4일 적 수중에 다시 함락됨)였다.

한밤중에 춘천을 떠난 우리 부대는 흥천, 횡성, 원주, 제천, 단양과 죽령을 넘어 경북 봉화를 거쳐 강원도 영월군

교대로 잠을 자면서 걸었다. 행군 도중 “10분간 휴식” 소리가 나면 모두 길바라키나 논두렁에 기대어 드르렁 드르렁 코고는 소리가 요란했다.

이렇게 고된 강행군 끝에 중동면 녹전리에 도착한 우리 부대는 이미 그 곳까지 내려온 적군을 만나 다시 전투에 들어갔다. 험준한 산봉우리를 타고 적진을 공격하려고 대기하던중 아군 포병부대의 지원사격이 관측 잘못으로 아군 진지에 떨어져 수많은 장병이 몰살당하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영월군 북면 마차리 탄광지대 전투에서는 3대대 10중대장이 적탄에 맞아 전사하는 안타까운 일도 겪었다.

다시 복진하기 시작한 우리 부대는 눈이 허리춤까지 차는 산 속을 헤매면서 그해 봄 인제군 원통리까지 북상했다. 그러나 이렇게 악전고투하던 우리 부대는 적의 2차 춘계공세에 다시 밀려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번은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에서 적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기습공격을 받았다. 바로 뒷산에서 요란한 기관총 사격으로 공격해왔다. 우리는 혼비백산하여 배낭 등 모든 장비를 버린채 철모와 소총만 들고 뛰어 달아났는데, 바로 앞에 큰 강물이 나타났다. 이 강을 빨리 건너야 했다. 성미 급한 병사들은 그대로 강물에 뛰어들었지만 급류에 밀려 동동 떠내려갔다.

軍番인식표 아직 간직

9·28 서울 탈환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곧 징병 소집, 대구 훈련소에 입대했다. 훈련이라야 단 1주일, M1소총 분해 결합, 실탄 장전법이 고작. 열처에 실려 춘천으로 간다. 사범학교 건물, 7사단 본부다. 연병장에 정렬.. 대학생 30명이 뽑혀 하사로 임명된다. 그 중 9명이 5연대 3대대 2중대로 배속, 나는 경기관포 소대의 제1분대장이 됐다.



이순기

- 본회 회우
- 전 한국·중앙일보 편집부장
- 전 서울신문 편집부장

춘천 내평리(內坪里) 외곽, 눈 덮인 00고지 경사 35도. 선임하사를 따라 능선 진지에 이르러 지휘권을 인수했다. 눈보라가 썰썰, 말할 수 없이 춥다.

캄캄한 밤중 영하 20도. 전방 아래에 적정(敵情)이다. 나팔 소리, 다발총(多發銃) 소리와 함께 적병들의 돌격이다. 여기저기 버석버석… 얼어붙은 눈 경사를 올라오는 소리… 우리 기관포와 소총들이 일제히 불을 뿜는다. 수류탄도 던진다. 아무 것도 안 보이니 눈 먼 사격이다. 끝내는 백병전… 간신히 격퇴시켰다. 날이 밝아 전황을 파악한다. 인민군 시체 60여구 아군 전사도 20명이다. 나는 다행히도 살아남았다.

성탄 전야 축하연 중인데 적색경보가 울린다. 동시에 연병장에서 몇 발의 폭발. 침투한 중공군의 박격포 공격이다. 이때부터 7사단이 퇴각한다. 1·4 후퇴 서막이다. 눈 얼음 능선을 밤낮으로 퇴

축했다. 아래로 보이는 소양강은 결빙 빙판이다. 강변 나지막한 동산 2개 사이로 퇴각하는 중공군 병력이 보인다. 후방에서 아군이 포격한다. 빙판을 모조리 폭파… 적의 빙상 퇴로를 차단한다. 우리 기관포와 자동총들도 집중 사격한다. 적군 퇴각진용이 흐트러지는 것이 보인다.

추격 전진한다. 소양호 빙판 건너 사명산(四明山) 정상 능선에 진지구축. 건

너편 고지를 호주공군 전폭기 2대가 폭격, 우리 분대도 집중 사격한다. 상대방 적군도 포격, 우리 진지 부근에 떨어진 다. 그 어느 순간이다. 나의 진지가 직격탄을 맞아 박살이 났다. 나는 정신을 잃었다. (추후에 상상해 보건대, 몸 전체가 공중으로 뿔뿔이 떨어졌을 것 같다.)

충북 제천의 한 고지 아래에 주둔해 있는 야전 의무부대 천막에서 수술을 받고 정신이 돌아왔다. 위생병이 전후 상황을 일러준다.

“오늘이 1951년 4월 15일입니다. 3일 됐습니다. 이제 후송됩니다. 용기 내서 어 끝까지 참으셔야 합니다.”

쭈고 떨리고, 전신에 통증,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다. 머리 좌측에 심한 타박상, 우측 늑골 2대 골절, 우측 다리 부러지고, 무릎 탈골, 좌측 눈 각막 파열, 파편이 우측 뺨을 관통하여 잇몸에 박히고, 양쪽 손 발 모두 가벼운 동상…

캄캄한 밤 눈먼 사격 백병전 끝 적 격퇴 소양호 근처 진지서 직격탄 맞아 부상

각… 미끄러져 떨어지는 비명의 메아리 여러 번… 그렇게 안동까지 내려왔다. 이제 복진한다. 중공군과 전투다. 춘천 내평리. 아직 적군 지역이다.

전방 수색명령을 받고 마을 골목에 이르자 중공군이 보인다. 즉각 분산… 기관포 자동총 일제히 집중사격… 정찰대 6명 전원 사살했다. 1초라도 늦었더라면 우리가 몰살 당했을 것이다. 생각할수록 섬뜩하다

계속 전진한다. 퇴각했던 자리를 지나 오봉산(五峰山) 정상 능선에 진지를 구

이런 상태라고 일러준다. 위생병의 친절한 설명과 조언,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았다.

대구 신병 보충훈련소에서 받은 인식표, 군번은 0157616. 나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또 나의 생명의 은인들… 야전 의무대 군의관님, 밀양 7육군병원 원장님과 간호장교님, 그리고 밀양 성당의 마리아 수녀님… 이 분들을 영원히 못 잊는다. 그리고 함께 배속됐던 전우 8명, 모두 전사한 그들의 명복을 빈다. 

적의 총탄이 비오듯 날아오는 속에서도 신발을 벗고 총을 어깨 뒤로 돌려 매고 천천히 건너는 병사의 모습도 보였다. 나도 그 침착한 병사들 뒤를 따라 비교적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은 곳을 골라 강바닥이 얇은 데를 찾아서 겨우 헤엄쳐 건너갔다. 강을 건너 산골짜기를 10여명이 함께 기어올라 갔다.

마침 다른 골짜기로 올라왔는지 인기척이 들려 잔뜩 긴장한채 “정지. 암호”를 소리쳤다. 뭐라고 응답하는데 바로 그날 밤의 아군 암호였다.

이렇게 해서 만난 몇 명의 아군과 함께 남쪽 산기슭으로 내려왔다. 하루가 지나서야 겨우 연락이 되어 수송차량이 건빵을 잔뜩 싣고 찾아왔다.

그동안 겪은 배고픔과 추위를 달래며 부대로 돌아오니 이미 실종신고까지 했

는데 살아 왔다고 몹시 기뻐하면서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다.

휴전 직전에는 화전발전소를 적이 확보하기 위해 김화·금성지역에 병력을 총 집결시켜 대공세를 취해왔다. 우리 부대도 양구에서 화천 북방 금성 전선에 투입되어 격전을 벌이다가 53년 7월 27일 휴전을 그 곳에서 맞이했다.

지금까지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몇 토막의 전투 장면과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회상해 보았다.

6·25 전쟁 59주년이 되는 6월을 맞으면서 나와 같은 6·25 참전 세대의 감회는 남다른 것이다. 자유와 조국 수호를 위해 젊은 목숨을 초개처럼 불태운 전우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들의 명복을 삼가 두 손 모아 빈다. 

신문끼리 막말 편싸움 언론의 금도 벗어났다

국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을 가진 것이 언론이다. 따라서 언론은 국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국민과 시민에는 정치인 공무원 지식인 상공인 노동자 가정주부 학생 연예인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언론이 이들 모두의 대변자라고 해서 뉴스의 주제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아니 된다. 무슨 말이나 하면 신문이 시정잡배의 대변자 노릇은 할 수 있지만 시정잡배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신문은 시정잡배보다 못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불쌍사나운 모습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 이후 일각의 애도 분위기를 타고 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를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한겨레는 5월 27일자 사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 조·중·동이 공모한 ‘정치적 타살’이다”라고 포문을 연 뒤 6월 2일에는 ‘한국 언론, 자성만이 살 길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은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비등한 언론책임론의 표적이 됐다”라고 공격의 고삐를 당겼다. 그러면서 서거전과 서거후의 보도태도를 ‘변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향신문은 6월 3일자 사설에서 “우리는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신문들이 노 전 대통령 재임중 아니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 목소리로 그에게 비난을 퍼부어온 사실을 기억한다. 그것은 비난을 넘어 사실상 ‘저주’의 수준이었다.” “노 전 대통령을 ‘잡범’으로 몰아놓고 ‘너나 나나 마찬가지로’라는 식으로 우기는 것은 조폭(組暴)적 행태나 다름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발끈한 동아일보는 6월 6일자 사설을 통해 이례적으로 상대신문 필자의 이름을 열거해 가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한겨레신문은 4월 9일자 사설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잘못을 남김 없이 고해성사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편집국장을 지낸 김종구 논설

위원은 5월 1일자 칼럼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고통스러운 길, 사즉생의 선택을 하라’고 강요했던 장본인이다.” 경향신문 이대근 정치국제에디터가 “노무현 당신은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해야 옳다. 그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쓴 4월

신문시평



최병요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北核보다 조문행렬 더 비중있게 보도 감정적 비방으로 독자외면 심화 우려

16일자 칼럼은 무엇인가. 자기네가 쓰면 비판이고 다른 신문이 쓰면 ‘저주’인가. “주류 신문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막연하게 덮어씌우기를 하는 것은 양심을 속이는 일이다. 당신들이나 잘 하라.”

조선일보도 가만 있지 않았다. 6월 2일자 ‘태평로’ 칼럼을 통해 “이른바 ‘진보 매체’들은 어땠을까. 이들 역시 노 전 대통령이 ‘국민 가슴에 못을 박았다’(한겨레신문·4월 8일)고 통탄하고, ‘날개 꺾인 도덕성’(MBC·4월 7일)을 분노했으며, ‘박연차 50억, 한 점 의혹 없게 파헤쳐라’(경향신문·4월 1일)고 촉구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정치적 타살’ 운운하니 어색하기만 하다. 자기 잘못은 시치미 떼고 “누가 노 전 대통령을 죽였나”라고 외치는 이들에겐 ‘표변(豹變)’이란 말이 딱 어울린다.”

중앙일보는 6월 12일자 칼럼 ‘시시각각’에서 “분노에 차서 남의 집 대문, 심지어 얼굴에 침을 뱉을 수도 있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언젠가 목이 마르면 자신도 먹어야 하는 우물에만은 침을 뱉지 말자”라고 질타했다. 한 마디로 대단한 결기들이다. 글 쓰는 일이 본업이니 만큼 논리가 정연한 것은 당연하지만 상식의 궤를 벗어난 주장과 언사, 독자에 대한 무시와 비례라는 눈총은 어찌 감당하려는 것일까.

진보와 보수로 편이 갈린 신문사

받은 공동제약의 광고가 실렸다. 이 회사가 갑자기 두 신문에 광고를 낸 것은 광고 효과 때문이 아니라 협박 때문이었다고 봐야 한다. 두 신문도 ‘공갈법’이 끌어온 광고를 덩석 게재하는 것을 언론의 정도(正道)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며 속으로는 부끄러울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진보언론’의 실체라면 ‘정론’이란 말을 입에 올릴 수나 있겠는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조선일보도 “언소주가 한겨레·경향 광고사원이나.”(‘100자평’ 6월 12일자)를 비롯 연일 ‘언소주’의 불법과 비행을 파헤치는데 혈안을 쏟고 있다. 언론사끼리도 서로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방식은 언론사다운 금도를 지켜야 한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나는 정(正)이고 너는 반(反)이다, 나는 그렇다치고 너는 깨끗하냐, 네가 무슨 정론지냐 하는 식의 막말로써는 결코 독자의 납득과 호응을 얻어낼 수 없다. 그렇게 끝사나운 표현과 아전인수격 논리로 분을 풀고 결기싸움에서 이긴들 돌아오는 이득이 무엇이겠는가. ‘글 재간꾼들의 이전투구’라는 독자들의 손가락질밖에 더 있겠는가.

그렇잖아도 국민장 기간에 보인 각 언론사들의 앞뒤 다른 과잉보도에 어리둥절했던 국민이고 독자들이다. 국가의 안위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 실험 사실보다 연일 계속되는 조문행렬의 상세보도를 더 가치(News Value)있게 편집하는 정론지이고 보면 진보신문과 보수신문을 굳이 평가할 생각이 없는 독자들이다. 오죽하면 관훈클럽이 지난달 12일 ‘언론 내부 반목의 벽 허물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겠는가. 이 자리에서는 “경쟁사 보도에 대한 왜곡과 악의적인 비판이 기자들간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이어 “입장이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일침이 있었다.

이 아니 옳은 말인가. 오늘의 신문경영 위기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지나친 자사 이기주의와 감정을 억제할줄 모르는, 독자를 어려워하지 않는 그악스러움 등 내부적 요인에서 잉태되었다는 인식이 절실한 때이다. [7]



수상하는 여영무 회우 부부.



수상하는 김태훈 차장대우 부부.

제4회 임승준 자유언론상 시상

대한언론인회가 주관한 제 4회 임승준 자유언론상 시상식이 지난 6월 22일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본회 조창화 회장과 제재형

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본회 조창화 회장과 제재형

명예회장을 비롯한 많은 회우들과 수상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금년도 제 4회 임승준자유언론상은 여영무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논설·논평 부문)과 김태훈 조선일보 문화

부 차장대우(문화취재 부문)가 받았다. 조창화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임승준자유언론상기금(이사장 손장순)이 이 상을 제정한 취지를 높이 평가하고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8]

물리적 형평성 내세워 교묘한 편향보도 판쳐

지난달 호에서는 공권력과 범법자의 코멘트를 편집 방송하면서 기가 막히게 같은 길이(물리적인 형평성)로 편집 방송한 KBS 기자의 보도를 예시한 바 있었다. 이번엔 물리적인 형평성을 기하는척 하면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불공정방송(화학적인 형평성 위반이라고 부르자)을 행한 실례를 제시하면서 독자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28일 밤 9시 MBC 뉴스데스크를 보면서 필자는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었다. MBC가 저렇게까지 변질된 것인가. MBC 기자가 저렇게까지 잔머리를 굴리면서 여당을 깔아 뭉개고, 야당 편향적일 수가 있는가. “야당, 정치적 타살, 책임자처벌요구”란 서브타이틀로 여·야당 움직임을 보도한 장 모 기자. 그는 물리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척 가장한채 화학적 형평성은 훼손하면서 시청자가 보기에 야당 주장 일변도로, 반면 여당을 깔아 뭉개는(필자가 판단하기로는 여당 대표의 똥 오줌도 제대로 못가리는 것처럼 느껴지도 록)식으로 보도했다. 그의 보도내용을 잠시 소개할 수밖에 없다. MBC에 나와 있는 장 기자의 보도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민주당은 오늘 일제히 포문을 열고,(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은)정권의 지휘를 받은 검찰의 보복수사가 불러온 타살이며, 심지어 고문치사라고 비난하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중략)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정권의 보복과 모욕주기식 검찰수사가 만들어낸 정치적 타살이라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강기갑 대표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지 않고, 고인 앞에 머리 숙여서는 안됩니다.” 이어(노회찬 대표 인터뷰)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 정권이자 죽음을 부르는 정권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날 야당이 내놓은 코멘트의 핵심은 강기갑, 노회찬 두 대표의 인터뷰에 다 들어 있었다.

반면 여당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 보자. 리포트의 말미를 장식한 안상수 여당 원내대표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일 영결식에 모두 참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같은 날 KBS보도도 야당 움직임을 MBC와 거의 비슷했으나, 안상수 원내대표의 인터뷰 내용만은



신대근
· 본보 편집위원
· 전 MBC보도제작국장
· 전 충주·대구 MBC사장

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 모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편향적인 편집을 했다면 그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뉴스를 다룰 자격이 없으며 하루라도 빨리 기자직을 떠나 정치마당으로 자리를 옮겨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더보니 그렇게 됐다고 변명한다면 그는 스스로

령 서거후 공영방송을 포함한 지상과 방송 3사의 메인뉴스를 분석한 결과, MBC 뉴스가 가장 많은 양의 노무현 서거관련 뉴스를 편집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언된 발표에 따르면 노 서거후(5월 23~29일)의 3사 뉴스 가운데, MBC 뉴스의 서거관련 보도량이 7일간 전체기사 349건중 248건으로 KBS의 188건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MBC의 보도량은 7일간 전체기사 보도 건수의 71.1%로, KBS의 56.8%보다 크게 앞섰다. 서거전 보도를 보면 전체 보도건수는 KBS가 많았지만, 검찰측 입장을 전달하거나 노무현을 비판하는 내용은 MBC가 많았다고 공언련은 밝혔다. 특히 공언련은 “서거전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노무현이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한 목소리를 내던 공영방송사들이 서거후 돌변해 그의 서민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기득권에 맞서 싸우려고 했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며 “방송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역정을 반복 방영해 고인의 공과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지 않고 미화하지 않았나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방송사들도 서거방송 후폭풍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점이다. KBS는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했다는 비판을, 반면 MBC는 필요 이상으로 적극적인 편성을 했다는 비판을 내외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이다. KBS는 기자와 PD 등 구성원들로부터 “현 정권을 의식한 소극적인 편성 때문에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반발에 직면했다. KBS PD협회와 기자회견은 각각 본부장들에 대한 신임투표를 벌였고, 압도적인 다수가 이들을 불신임했다고 한다. “죽은 노무현이 산 MB를 괴롭히고 있다”는 세간의 농에 덧붙여 방송사들도 시청자들과 역사로부터의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때 우리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셈이다. [4]

與대표 인터뷰 내용 알맹이 빼고 방송 불공정 리포트 왜 안걸러지는지 의문

MBC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화합을 이루고 상생하자는 것이 고인의 뜻이었으므로,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인터뷰의 요지였다. 이것이 이날 여당 원내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의 핵심이었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이날 MBC의 보도를 본 분으로서 과연 이 리포트가 내용 측면에서 (화학적인)형평성을 유지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MBC 기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MBC 내부 윤리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MBC가 과연 야당 편향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엄기영 사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작과정에서 이와 같은 형평성 위반, 불공정 리포트가 걸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사후 모니터에서는 이와 같은 위반부분이 지적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그와 같은 자정장치 가동되지 않았다면, 그런데도 과연 시청자들에게 MBC뉴스를 시청해 주기

기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하고 역시 기자직에서 떠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 하면 시청자들은 매우 현명하며 한두번은 속을지 몰라도 계속 속아 넘어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런 사소한 사안으로 기자의 진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이다. 그러나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은 잔꾀는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더 큰 왜곡 보도, 더 큰 형평성 위반사안이 벌어지기 전에 이와 같은 행태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이와 같은 리포트, 혹은 인터뷰 한 꼭지가 모여 전체 MBC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시청자를 떠나게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MBC의 미래는 암담하다고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공정언론시민연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

7월 11일 건강포럼 개최 ‘의학과 공학의 만남’ 주제

6월 長壽와 酵素 강연 성황



6월 포럼 강사 장우성 박사.

대한언론인회와 한국성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7월 건강포럼은 ‘의학과 공학의 만남’이란 이색적인 주제로 오는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옆에 있는 이윤수 비뇨기과에서 열린다. 대한언론인회 회우들의 전립선 무료 검진 등을 주선한 바 있으며 회우들의 비뇨기 계통 질병에 대해 무료 자문을 하고 있는 이윤수 박사는 성의학과 전립선 명의이다. 한편 지난 6월 13일 열린 6월 건강포럼 ‘장수와 효소’는 많은 회우들의 관심 속에 열려 1시간 강의시간을 넘겨 진행

됐고, 이어 강사인 장우성 박사가 회우들의 뒤꽂이에 까지 참석해 회우들의 질문에 답해야 했다. 이날 강사인 장 박사는 ‘장수와 효소’란 주제를 통해 “모든 동식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소를 필요로 하는데, 인간은 이 효소가 사춘기와 청년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줄어들고, 장년기가 되면 거의 체내에서 분비가 되지 않는데, 연구에 의하면 인체의 수명은 인체내에 있는 효소의 양과 깊은 관계가 있어 우리 몸에 효소가 충분히 있으면 언제나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수 비뇨기과에서 열린 6월 건강강좌.

장 박사는 또 현재 밝혀진 인체내의 효소는 5,000여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효소들이 건강의 근원이 된다면서 노년기에 체력증진을 위해서는 효소가 특히 많이 들어있는 발효식품, 즉 김치나 된장찌개, 새우젓, 일본인이 즐겨먹는 ‘나토’ 그리고 중국인들의 먹고 있는 ‘뿌리 야채’를 먹거나 되도록 끓인 음식

보다는 날(生)것이 좋으며, 최근에는 건강보조 식품으로 ‘효소’가 나와 부족한 효소를 보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 박사는 이 날 참석한 회우들에게 자신이 최근 펴낸 <여성들이여, 건강의 중심에 서라>는 책과 일본에서 생산한 ‘효소’ 시공품 1포씩을 선물했다. [4]

(이보길 편집위원)

서예하고 춤추며 바쁜 삶... “할 일

1927년생으로 올해 만 82세인 덕천 김윤덕 원로 회우는 초등학교 교사, 신문 기자, 수협 공보관, 재건국민운동 사무국장, 서울시 공무원교육원과 명지실업전문대학 강사 등으로 다채로운 삶을 열정적으로 살았다. 은퇴한 후에도 서예와 무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각종 모임에 참석하다 보니 할 일이 너무 많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인터뷰를 약속한 6월 18일 낮 시간에 산본 김 회우의 자택을 찾았다.

김 회우 혼자 생활하고 있는 35평 아파트는 온통 서예 작품들로 둘러 싸여 있고 가족 사진과 기념품 등 삶의 흔적들이 한쪽 면을 차지했으며 6월의 달력은 각종 약속을 표시하는 빨간 동그라미들로 채워져 있었다.

김 회우는 흰머리였으나 건강한 모습 이었고 말투는 활력이 넘치고 움직임도 가벼웠다.

커피를 내놓으며 이 잔이 오래된 건데 참 오랜만에 제몫을 한다며 말문을 여는 김 회우에게 “혼자 지내실만 하세요”라고 물었더니 “서예도 하고 춤도 추고 바쁘게 지내기는 하는데 사람 하나가 이렇게 크고 중요한 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허전하고 고독하고...” 말을 잊지 못하고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김 회우의 모습에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진하게 느껴진다. 사모님 권육남(權旭男) 여사는 2004년 3월 심장병과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먼저 가셨다.

“아내는 반듯하고 여성스러웠으며 서로를 극진히 위했었는데 너무 위해서 일찍 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김 회우의 사부곡(思婦曲)이 더욱 간절해진다. “행복했던 시간들, 손잡고 여행할 때 모습 등이 떠오르면 조물주가 원망스럽기도 해요. 생자필멸(生者必滅)이고 회자정리(會者定離)라고 하지만 한 날 한시에 같이 못간게 원망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나보다 당신이 먼저 간 것이 낫다는 생각도 해요. 나는 끼도 있고 놀기도 좋아하지만 평생 남편과 자식 뿐이었던 당신이 홀로 됐다면 어찌 견디겠느냐고 님두리도 해본답니다.”

장남인 강원대학교 IT특성화학부 김정범 교수의 연구실적이 인정을 받아 세계적인 인명사전에 등재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남편과 자식밖에 모르며 낳고 기르고 가르친 당신의 위대한 힘이었죠. 장한 유적”이라고 아내의 공을 기리며 “나는 요즘도 당신과 무언의 대화를 해요, 때로는 “여보”하며 거실에서 방에서 사진을 바라보며 자주 불러 보기도 해요, 그렇게 해도 어떤 편 가슴 속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라는 사랑의 글을 간직하고 있었다.

1남 2녀에 손자 손녀까지 직계 식솔이 18명인데 속썩이는 자손은 하나도 없다. 가족 사진에 나와 있는 부인이 타계하신 후에 손주 하나가 태어나서 가족은 18명이 되었다고 한다.

한 때 아들이 “춘천으로 옮겨 합치자”고 했지만, “나는 네 어머니와 살던 이 집에서 네 어머니가 남긴 추억들을 되새기며 살겠다”고 했더니, “아들네가 산본으로 이사 와서 옆 아파트에 살고 아들은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12>

춘천을 오가며 생활한다”고 한다.

“서예전에서 입상이라도 하면 주변 분들에게 인사도 챙기시고 식사대접을 하더라도 맛있는 걸로 하시라고 두툼한 봉투를 마련해 준다”며 이런 “자식들의 효도도 모두 자식 교육을 잘 시킨 결과”라고 말하는 김 회우의 아내 자랑과 그리움은 정말로 끝이 없었다.

김 회우는 일제 말기에 교원시험에 합격해 18살 때부터 소학교 훈도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출생지인 경기도 연천에서였다. 해방후 분단으로 고향이 북한 땅이 되면서 전국인민학교 교사가 돼있었다. 그 때는 남북왕래가 비교적 쉬운 때여서 주소만 서울 경성부로 옮겨 놓고 교원복직 원서를 제출했다.

남북한 양다리 걸치기가 가능했던 시절의 이야기다.

1946년 2월 서울 무악국민학교 교사로 발령이 나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 학교 숙직실에서 밥을 해먹으며 야간인 국학전문학교 국문과에 입학해 낮에는 선생, 밤에는 학생으로 바쁘게 열심히 살았다.

북한 땅에서 서울로 옮긴 것은 체제나 이념 문제가 아니었고 오직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일념에서였다고 한다.

음악과 체육에 특히 소질이 많았던 김 회우는 무악국민학교에서 음악주임으로

회우초대석

金潤德

전 초등학교 교사
전 민중일보, 연합신문, 평화신문 기자
전 수협 공보관, 재건국민운동 사무국장
전 서울시공무원교육원·명지실업전문대 강사

인터뷰 글·사진 /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수필가)



감자탕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김윤덕 회우.

國選 입선 등 각종 서예전 입상 8번 특선 3번 거 먼저 간 부인에겐 미안하지만 건강위해 무도 겨

합창단을 조직해서 전국 콩쿠르대회에서 입상하고 정동에 있는 경성중앙방송국(지금의 KBS)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창신초등학교로 옮겨서는 체육주임으로 핸드볼 팀을 지도해서 서울시 대회에서 결승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때마다 김 회우의 의욕과 욕심, 적극적인 활동은 교장과의 마찰과 불화를 빚곤 했다고 한다.

김 회우와의 대화가 막 무르익어 갈 때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다. 벌써 오후 1시가 가까워졌고 커피는 이미 식은지 오래였다. 장소를 근처 감자탕집으로 옮겨 감자탕에 소주를 반주로 하며 인터뷰를 계속했다.

김 회우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할 때 한 국전쟁이 벌어지고 1·4후퇴때 징용돼 군의관으로 복무했으며, 군제대후 국대학 동기생인 이강순 민중일보 교정부장 의 권유로 교정기자로 언론인의 길을 걷게 된다. 민중일보에서 시작된 기자생활은 연합신문을 거쳐 1957년 평화신문 사회부 기자로 서울시 경찰국을 출입했으며 대한통신에서도 사회부 기자였다. 그리고 산업경제로 옮겨 농림부 출입기자로 두드러진 활약을 하게 된다.

10여년간의 기자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잘 나가던 김두한이 시경에 잡혀간 사건을 특종 보도한 것이었다. 수사과장실에서 김두한 연행 사실을 낚새채고 사진기자와 함께 낙원동 김두한 집으로 찾아 갔다. 당장이라도 내쫓을 듯한 건장한 청년들의 험한 분위기에 겁이 나기도 했으나 김두한의 건재한 모습을 취재해서 소문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리려 한다고 둘러대며 시간을 끌었다. 꽤 긴 시간이 흐른뒤 사찰계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김두한의 연행 과정을 생생하게 취재해서 조간인 평화신문에 특종 보도했던 일은 지금도 자랑스럽다고 한다.

농림부 양정국 사건을 취재하던 때의 기억도 새롭다고 한다. 사건 담당 취조계 형사와 무고동 보신탕집에서 술 한잔 마시며 지나가는 말처럼 물어 한 가지를 확인하고 노래 한국 부르고 의문 사항을 보충하는 식으로 특종했던 일은 지금도 생각하면 미소를 짓게 되고 스스로 뿌듯하다고 한다. 실컷 재미있게 놀고 특종도 했으니 말이다.

산업경제신문에서 농림부를 출입한 것이 계기가 돼서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 공보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때 수협의 노래를 만든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한

다. 노산 이은상 선생에게 부탁해서 가사를 받았는데 노산 선생이 작곡은 김동진 선생한테 부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대로 했으며 지금도 그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뻥뻥하고 한다.

또 ‘수협소식’이란 신문과 ‘어민지’란 잡지를 창간했던 일도 자랑이라고 한다. 사료를 정리하던 수협 관계자가 ‘수협소식’ 창간호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다가 수소문 끝에 김 회우를 찾았고 보관하고 있던 창간호를 기증하겠다고 하자 무척 기뻐했으며 지난 4월 24일 거창한 창간호 기증식도 열었다. 김 회우는 감사패와 행운의 열쇠도 받아 더없이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수협 공보관으로 있을 때 직원들이 공보관은 얼렁뚱당 술이나 마시고 기자들하고 적당히 어울리는 사람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을 보고는 실력을 키워야겠다고 다짐하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입학했다. 경영과 회계분야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한 실력을 바탕으로 공보에서 벗어나 조사통계과장과 관재과장의 중임을 훌륭하게 수행했던 경험도 커다란 자랑거리였다.

김 회우는 서울시 마을금고 창설에 주

이 너무 많아요”



서예에 몰두하는 김윤덕 회우.



18명의 대가족을 이룬 김윤덕 회우 일가.

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금고연합회 공제부장, 중앙교육원 교수, 경기도·부산·서울시 마을금고 사무국장으로 88년까지 봉직했다. 퇴직 후에도 명지실업

전문대학 강사, 고려컴퓨터시스템 회장 등으로 열과 성을 다 했으며 그 때마다 적지 않은 보람과 기록을 쌓아왔다.

다양했던 김 회우의 긴 과거 이야기에 빠져들다 보니 가벼운 피로가 느껴졌다.

인터뷰를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 지에 대해 물었다. “서예와 무도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먼저 서예 이야기부터 들었다.

“2003년 1월부터 서예를 시작했어요. 그 때 아내가 서예 하지 말라데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나이 들어 힘이 줄고 붓이 흔들리면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는 거였어요.” 서예에서도 김 회우의 사부곡은 이어지는 것이었다. “그해 9월에 군포시 노인 회화대회에서 입선했지요. 상금 20,000 원을 탔는데 아내가 나를 일싸안으며 좋아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내년에는 더 큰 상 타다 준다고 말했었는데... 지금도 서예학원을 다녀 올 때면 아파트 창가에서 나를 기다리던 아내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입상 8번에 특선 3번이며 국전에도 입상한 경력이 있다는 김 회우는 “낙재인화(樂在人和)와 수기이부책인(修

己而不責人)같은 명언을 새기며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귀하다고 한다.

김 회우의 거실과 안방, 서재에도 모두 휘호들이 두툼하게 둘러 싸고 있었다. 옛 선현들의 가르침이 온 집안에 가득한 듯했다. 김 회우는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인데 그중의 하나가 서예 스승을 잘 만난 것 이라고 한다. 학술, 실기, 인격 어느 것 하나 부족한 데가 없는 스승을 모신 것 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에는 대한민국서도대전에 입선 했고 오는 7월 11일 경기서도대전 시상식에서는 특상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도 자녀들이 두툼한 봉투를 마련할 것이라며 김 회우는 큰 웃음으로 기쁨을 터뜨리고 있었다.

서예와 춤은 영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며 춤에 대해 물었다.

“사실 사회부 기자 시절에 조금 배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아내가 아파 누워있을 때 춤을 배우겠다고 하니 그러지 말라데요. 나 죽은 뒤 마누라 감을 미리 찾으려는 거냐구요. 하지만 늙을수록 건강해야 하고 의욕을 가지고 취미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무도장을 찾았지요. 그러다 아내가 죽으면서 아차 했지요. 아내를 가장 아프게 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도장에는 발을 끊었지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어요. 글씨를 쓰는데 다리의 힘이 풀리는 거예요. 무릎에 이상도 생기고 그래서 다시 무도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스스로를 잡놈이라고 말하는 김 회우는

술 이야기 ①



金泰運 회우

술 먹는 나라 못 먹는 나라

〈탈무드〉에는 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러주는 대목이 있다.

“아침에 먹는 술은 돌(石)이요, 낮에 먹는 술은 구리(銅)요, 저녁에 먹는 술은 은(銀)이다. 그러나 사흘에 한번 먹는 술은 금(金)이다.”

유태인들은 원래 금욕주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가 유니크하다. 유태인들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희로애락의 여건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즐겁게 향유하고 있다.

그들의 인생관은 뚜렷하다. “우리는 먹기 위해 산다. 그것도 더 잘 먹기 위해 돈을 쓴다.”

그들에게 있어 인간의 즐거움- 연애, 술, 섹스 등등은 금기사항이 아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알박한 지갑은 불편하기 때문이다.”

〈탈무드〉와 같은 성전(聖典)이나 지혜서가 없었던들 그들은 수천년에 걸친 나라 없는 유랑생활을 어떻게 견디어 낼 수 있었겠는가.

세계는 지금 술로 차있다.

포도주, 위스키, 소주, 사케, 데킬라, 맥주. 하여간 각 나라마다 제 나름대로 국민주(國民酒)를 갖고 있고 또 그것을 큰 자랑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술에 관한한 세계가 두쪽으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을 “술 이야기”에 앞서 간과할 수가 없다.

이슬람과 힌두교다.

4억명을 헤아리는 회교국과 인도의 힌두교. 술 못 먹는 나라로 구분되는 이들 나라는 ‘알라(神)’의 교조에 따라 세계를 양분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는 정의는 성립될 수가 없다.

그렇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톨릭에서는 미사예절에서 예수의 피를 포도주에 비유한다. 예수는 그가 공생활(公生活)을 하기 이전 어머니 마

리아의 부탁으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는 기적을 행했다. 이것이 예수의 첫 기적이었다. 인류사상 첫 음주자로 기록(구약성서)된 노아가 방주(方舟)에서 나와 마신 술이 바로 포도주였다.

술의 세계는 재미 있다. 어느 철학자는 말하고 있다. “이 세상에 만약 술이 없었던들 아마도 세계의 역사는 지금과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술을 마시고 인생을 즐기고 있는가. 술의 역사를 보면 역시 술의 으뜸은 와인(Wine)이다.

100종류가 넘는다는 와인은 그래서 술의 왕자로 군림했다. 세계에서 가장 술을 좋아하고 많이 마시는 민족은 프랑스 사람이다. 세계 1위의 음주국.

프랑스 사람들의 연간 주류 소비량은 적어도 알콜 환산으로 약 18리터. (이 숫자는 어린이, 노인, 임신부 등 비음주자를 빼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음주의 양은 많아짐)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에 이어 브랜디를 식후에 곁들인다. 애프터 디너의 근사한 음주다.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 포르투갈. 그 뒤에는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이어진다.

세계 5위는 독일이다. 세계 4위까지는 주주(主酒)가 와인이었지만, 독일은 맥주로 순위가 랭크되고 있다. 각 민족들이 나름대로 기호하는 술들은 알콜 도수와 취향과 기후에 따라 다르다.

“술을 먹는 나라, 술을 못 먹는 나라”의 카테고리를 떠나 술 세계의 화려한 판도와 그 위대함을 터득하게 된다.

회교사원에서 시간만 되면, 스피커에서 고성(高聲)이 울려 퍼진다. 그 첫마디가 “알라는 위대하다”다.

어느 주전은 “술은 위대하다”고 말했다. ㉠

〈전 경향신문 사회부장, 매일경제부국장 전 제주파라다이스 골프클럽 사장〉

생긴대로 호탕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점잖다는 것은 전기 배터리가 없다는 말이라고 풀이한다. 안고 안기고 싶은 사람들이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춤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배워보라고 권한다.

그러면서 인생을 즐기되 원수는 맏지 말고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도장에 갈때 죽은 아내 사진 보고, 여보 미안해 다녀올게 하면 아내가 잘 다녀 오세요. 죄는 짓지 말구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춤을 추는 상대에 대한 기본도 서로 확실해야 하며 이해하고 부담에서 자유

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우를 따라 무도장에도 갔다. 춤을 즐기는 노익장이 부럽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후배 기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했다. “정이 메마른 것 같아요. 동지애, 의리 같은 것이 없어지고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치열하게 경쟁하고 한 잔하고 풀어버리는 도량과 기백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아쉬워요.”

김 회우는 욕심이 참 많은 분 같다. 요즘 새로 기타를 배워서 시민회관에서 공연한 일도 있고 하모니카도 배우기 시작했단다. 탁구도 잘 치고 싶어 군포시 체육회관을 찾기도 한다고 했다. ㉡

정보화시대의 신문

전남일보

지금 우리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정보와 뉴스 속에서 전남일보는 독자여러분의
진정한 동반자로 본격화된 지방시대에 부응하고 무한경쟁
시대를 사는 독자여러분께 생동감 있는 뉴스, 깊이 있고
예리한 논평과 해설, 유익한 생활정보를 빠르고, 바르게
전달하는 신문입니다. 가까이에서 세계와 만나십시오.
정보화시대의 신문-전남일보



전남일보사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00-5
 사 / (062) 519-0707 FAX / (062) 519-0709
 고 / (062) 512-0100 FAX / (062) 510-0436
 영지원 / (062) 510-0370 FAX / (062) 510-0328
 편집 / (062) 510-0362 FAX / (062) 510-0328
 서물지사 / (02) 725-8890 FAX / (02) 725-1300

태평로論壇

그는 과연 존경받을 만한 人物이었나

국어사전을 찾아 보니 ‘서거(逝去)’는 ‘사거(死去)’의 높임말이라고 나와 있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높임말이 붙여질 만한 인생을 살았으며, 죽음 방법도 높임말에 상당한 죽음을 하였던가. 생전에 그를 추종하던 노사모가, 야당이, 국가가, 정부가 ‘서거’라고 내거는 것은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가 있으므로 용혹무괴(容或無怪)라 하더라도 객관보도를 해야 할 신문이, 방송이 덩달아 ‘서거’라고 써도 괜찮은가. 높은 자리에 올랐던 경력이 있 기만 하면 무조건 ‘서거’냐, 나는 이 점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다.

이 문제를 따지기 전에, 나는 먼저 그가 자살을 선택한 장소를 문제 삼고자 한다.

속칭 ‘부엉이바위’라는 그곳은 그가 새로 집을 마련한 그 마을 뒷산이며 사람들이 뻥 바라볼 수 있는 장소이다. 여기서 뛰어내려 죽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그의 망령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죽으려면 어디 잘 안 보이는 후미진 곳에서 죽을 일이지 사람들의 산책로에서

죽으면 어떡하라는 말이나. 그가 마을 사람들을 한 번도 사랑한 일이 있는가 묻고 싶다.

덧붙여, 그가 진정으로 그의 가족을 사랑하였는가를 묻고 싶다. 일단 결혼을 하였으면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그 수명이 다 하도록 생존할 의무가 있다. 일단 자식을 낳았으면 일정한 시점까지 살아 있을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설사 ‘모함’을 받아 일시 형무소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혐의사실을 소명하여 자존만대로 누명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는 남의 죄도 풀어주는 변호사가 아닌가. 그런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그는 왜 자살을 선택하였는가. 이것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닌가.

그는 유언을 남겼다. 그 속에 노사



박 현 태

- 본회 회우
- 전 국회의원
- 전 KBS 사장

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여러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고만 썼다. 그에게 정치적 운명을 걸었던 그 사람들을 어찌 하라는 것이냐. 자기가 옳다는 얘기도 없었다. 그렇다면 그의 추종자들과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은 그의 죽음을 어떻게 알고 있으라는 말이나.

그가 죽고 나서

항간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에게 너무 가혹한 대접을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말들이 나왔다. 그렇다면 수십억 원 수백만 달러를 수수한 뇌물사건은 있지도 않은 사건을 현 집권세력이 조작했다는 말이나. 그는 단 한번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이 때 검사로부터 따귀라도 한 대 얻어맞았다는 얘기가.

한국의 좌파들은 언제나 ‘남의 탓’만을 일삼는다.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책임 있는 시민의 식이나.

정당이 그렇게 부르고 정부가 그렇게 내세운다고 해서, 조문객이 수십만 명이라고 해서 말이 달라질 수는 없다. 말은 정확한 의미대로 쓰여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언어 파괴이고 문화파괴이다. 언어와 문화를 파괴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에는 이상한 풍토병이 있다. 사람이 죽었다 하면 시비곡직을 불문하고 군중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는 괴이한 풍토병이다. 죽은 자는 그 전의 사회적 평가와는 전혀 상관없이 금방 영웅이 되고 무조건 추앙된다. 이 군중에 놀라 정당이 춤을 추고 언론이 찬송가를 합창하고 정부가 추종한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현상일 것이다. 이 와중에서는 국가의 당면과제도 안보상의 심각한 위협도 도외시된다. 참으로 ‘천박한 국민’이고 ‘천박한 정치’이며 ‘천박한 언론’이다. [7]

정치가의 道德과 必要惡을 생각한다

먼저 밝혀 둘 것이 있다. 필자는 추호도 금권정치를 비호하려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너무나도 할 줄 몰라 국권을 포퓰리즘과 대중선동을 앞세운 사이버 시민단체 등 폭력적 압력단체에 찬탈당해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지 못해 끓어 오르는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정치의 최고 목표는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정치가의 최고 도덕은 경제제민(經世濟民)이라고 한다. 이는 정치 권모술수의 귀재라는 마키아벨리를 비롯해서 중국의 韓非子와 孔子 孟子가 모두 같은 뜻으로 말한 것이다.

경제제민을 줄인 말이 경제(經濟)라고 한다. 우리말사전을 보면 경제제민의 뜻은 “나라를 다스려 백성을 구제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는 동의어라고도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 정치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경제제민을 외면하고 오직 도덕과 윤리성만 시시콜콜 따지며 정쟁의 도구로 삼고 능력이 부족해도 오직 깨끗한 사람만이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과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청빈하고 고결한 지도자만이 나라를 융성시키고 백성을 잘 살게 했다는 사실을 찾기 어렵다.

“정치인의 도덕은 다르다”라고 말한

孔子는 극악무도했던 齊나라 임금 환공(桓公)을 늘 칭찬했다. (桓公은 바르게 행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 論語憲問)

그런데 정권을 빼앗기 위해 형제는 물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수백 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심지어는 맛있다고 인육까지 먹는 桓公의 만행을 孔子는 일언반구 탓하지 않고 칭찬한 이유는 무엇이이었을까? 그것은 공자가 “정치의 이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은 춘추전국시대 수백년 동안 양육강식의 전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서 桓公은 구합일공(九合一匡)을 통해 나라를 굳게 지키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한 공을 세웠다. 孔子는 외침을 막고 백성의 경제생활을 보장시킨 桓公의 공은 그의 어떤 도덕적인 비행도 덮을 만하다고 본 것이다.

영국을 세계 최강 국가로 만든 것도 정치적으로 가장 부패했던 시기였다. 영국이 근대 의회정치와 내각책임제를 통해 입헌정치를 확립시킨 사람은 총리대신이었던 ‘로버트 월폴’ 경이다. 재임 1721~1742년. 그는 20년이 넘는 재임기간에 안으로는 헌법을 완성시키고 밖으로는 프랑스와의 제2차 백년전



박 진 서

- 본회 회우
- 전 서울신문 사회부장, 논설위원

쟁을 승리로 이끌어 영국을 세계 심판자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월폴은 정경유착을 통한 금권 부패정치의 원조로 볼 수 있다.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의원매수 등 온갖 부정수단을 동원해 의회를 마음대로 움직였다. 이른바 필요악의 참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정치학을 윤리학으로부터 분리시킨 ‘마키아벨리’는 정치에 있어 필요한 것은 오직 힘이며 이 힘의 요체는 윤리 도덕에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치도덕과 일반 시민도덕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은 청결과 정직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지 않는가?

가장 이상적인 통치방법은 독재정치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다만 독재자가 神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다수결 원칙을 앞세운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완전무결하고 또 인류가 도달한 최고의 정치형태라는 말 그대로 진정한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민주주의는 막대한 비용과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지 못하면 곧 소멸되는 취약한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주주의의 眞髓는 의회정치가 제대로 기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토론조차 거부하는 야당의 폭력적 작태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의견은 무조건 반대하며 심지어 결사투쟁이란 구호까지 내거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충수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부패정치를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는 데는 모두 생각을 같이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써서라도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데도 부패정치, 타락정치만 안하면 무능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용서할 수 없다. 이른바 필요악의 존재 때문이다. 부패의 척도를 감시해야 할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항상 강대국의 영향 속에 온갖 국난을 헤쳐온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대처했던 강인한 민족성을 앞세워 서로 시시비비만을 따져 적대시하고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한 현재를 명분이 아닌 실체적 이익을 우선하는 지혜를 창출하여 나라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정말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도록 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8]

최전방 OP서 본 금강산 “감회 새롭다”

퇴직 언론인 90여 명의 ‘리얼 로드’ 1박2일은 강호동 등 여섯 남자가 펼치는 ‘야생 로드 버라이어티 1박2일’의 인기몰이 만큼 활력이 넘쳤다. 전방고지 철책선 너머로 금강산을 바라보며 분단의 아픔을 되새겼고, 화진포앞 넓은 바다를 가슴으로 품으며 세월이 아아간 나이를 잠시 잊었다.

참석자 가운데 최고령은 여든 세 살의 崔武龍 金潤德 회우로 견재함을 과시했고, 홍일점 李泰子 회우는 인기 상종가. 현지에서 합류한 金鏞, 董文星, 朴漢根, 張昌榮 회우는 가이드 노릇을 톡톡히 하며 물심 양면으로 행사를 도왔다.

출발부터 귀경까지 일정과 일행을 꼼꼼하게 챙긴 吳健煥 상임이사의 수고로 1박2일 여정을 무사히 마무리했다.

역삼각형의 빨간 ‘지뢰밭’ 표지

세미나를 마친 회우들은 한화콘도에서 1박한 뒤 설악워터피아 온천사우나로 하루를 열었다. 회우들은 간밤의 숙취를 온천욕으로 풀며 “어! 시원하다”를 연발. 노천온천탕에 몸을 담근 文明浩 부회장은 “상큼한 공기에 코가 땀 뚫린다”며 세미나 진행을 맡았던 긴장을 풀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 아닌가. 아침 식사는 속초시 노학동 학사평 콩꽃마을에서 손으로 빚은 순두부와 황태 해장국으로 쓰린 속을 달랬다. ‘학사평’은 옛날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아 ‘學士坪’이라고 불렀으나 그 뒤 학들이 날아들고 깨끗한 모래가 많아 ‘鶴沙坪’이라 불린다.

서둘러 안보 탐방에 나섰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민통선 안쪽 논엔 모들이 파랗게 자라고, 이 지방 특산품인 자춧감 감자가 보랏빛 꽃을 평화롭게 피워 올렸다. 뼈꾸기의 구경진 울음소리는 호국영령들의 영혼을 위무하는 진혼곡처럼 들린다. 가시철조망에 매달린 역삼각형의 빨간 ‘지뢰밭’ 표지가 가시처럼 걸리고 북한 공비 침투장소라는 나무표지판이 분단의 현장을 실감케 한다.

동해 최북단 금강산 전망대(717 OP)에 올랐다. 관측장교가 북측의 소형물과 비무장지대(DMZ) 비디오를 틀어주며 절도 있게 브리핑을 한다. 남과 북의 초병(哨兵)이 마주보며 양측의 동태를 살피고, 농사짓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도 보인다. 휴전선 철책 너머로 북한 땅을 바라보니 가슴이 멍멍해진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 난지 59년. 남북화해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분단의 비극을 잊고 살았다. 회우들 가운데는 6·25참전용사도 있고, 종군기자도 있어 “감회가 새롭다”며 소회를 밝힌다.

기암괴석의 해금강 발아래 펼쳐져

대형 유리창 너머로 녹음이 짙은 금강산이 수목화로 다가온다. 검푸른 바다에 뿌리를 내린 기암괴석의 해금강이 발아래 펼쳐진다. 이곳에서 금강산까지는 가깝게는 16km 멀리는 25km, 금강산

大韓言論人會 안보 및 문화유적 탐방



금강산이 보이는 최전방 야외에서 기념촬영.(사진·이남규회우)



진부령 용대리 식당에서 황태찜으로 점심식사.

90여 회우 신나는 ‘리얼로드’ 1박2일

12,000봉의 마지막 봉우리 九仙峰(낙타봉)은 손에 잡힐 듯 가깝다.

맑은 날엔 금강산의 대표적인 봉우리들인 日出峰(1,552m)·月出峰·彩霞峰(1,588m)·六仙峰과 玉女峰(1,424m)·神仙臺 등을 볼 수 있다. 해금강은 더욱 가까워 선녀와 나무꾼의 전설로 유명한 감호(鑑湖)를 비롯하여 萬物相·부처바위·백바위 등이 한 눈에 들어온다. OP 옥상에 오르니 안보관광지로 손꼽히는 통일전망대와 전진십자철탑, 민족웅비탑이 아득하게 내려다 보인다.

2003년 2월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된 뒤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CIQ)는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이후 중단된채 정적만이 감돈다. 지난해 12월 완공한 DMZ박물관도 일부 시설의 하자과 전시품을 제대로 확보 못해 문을 열지 못한 채 덩치 큰 건물만 우뚝 서 있다. 명과

리해수욕장 부근 상가와 민박집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다.

休戰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어느 퇴역장군의 말처럼 우리는 “핵(核)을 베고 누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의 도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된 국민의식은 바람직하지만 ‘안보불감증’이라면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화진포 거북섬은 광개토대왕릉인가?

두 번째 들른 곳은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진 화진포 관광지구. 이곳은 이승만, 이기붕, 김일성 별장이 들어설 정도로 천혜의 풍광이 빼어나다. 바닷물과 민물이 교류하는 담염호(淡鹽湖)인 화진포 호수에는 연어와 송어, 도미 등이 잘 낚이는 낚시터로 유명하다.

화진포 앞 바다에 거북이가 머리를 뽑고 엎드려 있는 듯한 금구도(金龜島

:황금거북섬)가 고구려 19대 ‘광개토대왕陵’으로 추정된다는 해양박물관 여직원의 설명을 들었다. 서기 414년 생전의 훈적(勳績)을 기록한 ‘광개토대왕비’가 중국 지린성(吉林省) 지안(輯安)에서 발견되어 陵 또한 그곳에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한광일 화진포 해양박물관장(57)은 “금구도가 광개토대왕陵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한 관장은 그 근거로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에 화진포의 거북섬이 ‘고성금구도성지(高城金龜島城址)’라고 표시돼 있다고 한다. 또한 고구려 연구가 오종철의 <고구려본기 신주해(하)> 및 <다시 찾은 고구려 정사>의 출처를 들고 있다. 위 저서에서 ‘00忽(홀)’의 지명은 고구려 왕릉 또는 왕비의 능이 있는 지명으로, 화진포의 옛 지명이 ‘가라홀(加羅忽), 가아홀(加阿忽)’, ‘달홀(達忽)’로 화진포의 금구도가 왕릉이며, 석성(石城)의 잔해는 보호벽과 방파성(防波城)의 흔적이며, 산정 부근의 기왓장 조각과 주초석 잔해는 능의 사당(祠堂)이라는 것.

한 관장은 2007년 4월 사비 500만원을 들여 서울 월드시큐리티사의 탐사장비를 이용해 탐사했다. 그 결과 지하 5.8m지점 이하에서 금속성으로 추정되는 물체와 약간의 동공(洞空)이 보이며, 추후 정밀탐사와 실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역사학적, 지리학적, 풍수지리적으로 보거나 중국 지안을 자주 답사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강조한다. 그 해답은 학계 등 전문가들이 풀어야 할 과제다.

해양박물관 함선은 신비의 바다세계

화진포 광장에 우뚝 선 함선 모양의 해양박물관에 들러 신비의 바다세계에 빠져들었다. 1~2층에 위치한 패류전시관은 희귀한 각종 조개류와 갑각류, 산호류, 화석류, 박제 등 1,500여 종 40,000여 점의 전시품이 눈길을 끈다. 특히 고성 앞바다에서 포획한 물범, 바다사자 박제가 발길을 잡는다.

어류전시관은 해저터널을 갖춘 거대한 수족관. 색깔 고운 물고기 떼들이 산호 사이를 앙증맞게 유영한다. 해저터널에 들어서면 머리 위에서 가오리가 너풀너풀 춤을 추고 상어가 쏜살같이 지나간다. 휴게실을 겸한 3층 전망대에 오르면 화진포 푸른 바다와 넓은 호수가 한눈에 들어온다. 화진포 해양박물관은 한광일 관장이 세계를 누비며 수집한 희귀 조가비를 기증하면서 새로운 명소로 탄생했다.

거진항 한정식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 1박2일 여정을 접고 귀경길에 올랐다. ‘복불복’ 게임으로 식사와 잠자리를 정하는 ‘강호동의 1박2일’과는 달리 진지한 세미나 끝에 오감으로 즐기고 느낀 1박2일이다. [7]

이규섭 記
(본보편집위원)

言論산업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하다

大韓言論人會 경영위기 진단 세미나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회장 趙昌化)가 주최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와 신문발전위원회가 후원한 '언론산업의 위기진단' 세미나가 지난 6월 4일 강원도 속초 한화콘도에서 9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팔리는 신문에서 파는 신문으로”

洪元基 한국일보 감사는 '신문산업 위기인가' 제 1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나라의 신문 판매체계는 가정배달과 가두판매로 이루어져 왔으나 무료신문 등 장으로 '가판'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 일선 지국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제 특정 신문사 단독 지국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여러 신문을 함께 배달하는 '兼營支局' 체계로 운영을 해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한국일보 판매본부장과 한국신문협회 판매협의회장을 지낸 洪 감사는 “판매는 기업의 본질인데 우리 나라 신문기업은 대체로 인쇄시설 증설과 우수기자 양성 등 신문제작 분야에만 역점을 두었을 뿐 판매분야는 50~60년대 思考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일선 판매시장 관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洪 감사는 “신문사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인 만큼 경영층부터 판매부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신문판매 계획수립 단계부터 전사적(全社的) 차원에서 마케팅 활동을 펼쳐야 신문이 산다”고 강조했다.

본보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成樂五 전 영남일보 사장은 토론을 통해 “신문사의 무리한 확장정책과 출혈경쟁이 신문경영난을 부채질했다”고 위기를 진단한 뒤 “불성실한 독자보다는 '충성스러운 독자' 확보를 통해 열독률을 높이면 광고유치와 광고단가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산업의 위기는 신문사 스스로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지나친 부수·증면경쟁을 지양하고 중저가 광고개발을 위해 신문사 문턱을 낮춰 독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 사회·국제부장을 지낸 權寧國 강원일보 고문은 “요즘 언론시장은 메이저신문 2~3곳을 제외하고는 기자들 월급 100만원도 못줄 정도로 어려우며 특히 지방지는 경영난이 심각하여 월급을 줄 정도면 선방하는 경우”라면서 제 주도의 경우 인구는 강원도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일간신문은 4개나 되어 경쟁력이 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그는 또 “한 달 신문 값으로 경제지



속초 한화콘도에서 열린 대한언론인회 세미나.

‘언론산업 위기진단’ 세미나

제 1주제

주 제 : '신문산업 위기인가'

발표자 : 洪元基 한국일보 감사·본회 부회장

토론자 : 成樂五 전 영남일보 사장·본보 편집위원장
權寧國 강원일보 고문

제 2주제

주 제 : '경제 침체속에서 방송광고를 살릴 길은'

발표자 : 이수범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토론자 : 申大根 전 대구MBC사장
鄭斗鎭 전 CBS보도국장·전무

사회 : 文明浩 전 문화일보 논설주간·본회 부회장

때 : 2009년 6월 4일

곳 : 속초 한화콘도

토론정리 : 李圭燮 본보 편집위원

사 진 : 李保吉 본보 편집위원

선진국 대부분은 복수 미디어 랩 체제를 두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민영 '미디어랩'(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영 미디어랩 설립은 그동안 KOBACO를 거쳐 배분되던 방송광고를 시장경쟁 체제로 전환하여 방송사별로 수주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완전 경쟁 초기 단계에서 미디어랩의 난립과 지역 및 종교방송의 수익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취약매체 지원 등 공적 의무이행 감시를 위해 3년 동안 허가제로 운영한뒤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전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3년 동안 KOBACO는 방송광고산업 진흥과 공영방송 대행기능을 하고, 민영 미디어랩은 민간 컨소시엄과 민영방송 대행기능을 수행하는 공존체제”가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申大根 전 대구 MBC사장은 제 2주제 토론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악화가 심각하다”면서 “시청료 인상과 중간광고제 도입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사와 스폰서는 중간광고제를 선호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고, 편파방송을 한다면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청료를 인상하되 프랑스처럼 상업적 기반이 열악한 교육방송, 종교방송 등에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의했다. “민영 미디어랩 도입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지상파 광고 독점판매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미디어법과 연계하여 처리해야 한다”면서 “시청료 인상과 중간광고의 도입은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鄭斗鎭 전 CBS보도국장·전무는 “KOBACO가 지난 1981년부터 지상파 방송 광고를 독점 판매함으로써 요금이 통제될 뿐만 아니라 끼워팔기가 이뤄지는 등 시장기능이 제

대로 작동하지 않았던데 대해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한 뒤 “KOBACO를 폐지해야 하고 민영 미디어랩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영이 취약한 종교방송, 군소방송, 지방방송 등엔 정부서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앞서 趙昌化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세미나는 언론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매우 걱정스러운 테마”라며 “방송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신문은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몸담았던 언론을 걱정하고 열띤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

신문 — 全社的 마케팅으로 독자·광고 확보 방송 — 수신료 인상·미디어 랩 경쟁체제로

와 주간지, 스포츠지까지 끼워주니 '너 죽고 나 죽자 식' 출혈경쟁"이라며, "그래도 지방토호들은 신문경영에서 손을 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의 난립을 줄이고 과감한 구조조정만이 살 길이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랩 전면 경쟁 유예 필요”

이수범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제 2주제 '경제 침체속에서 방송광고를 살릴 길은' 발표를 통해 “방송광고도 금융 불황으로 2008년 12월 광고비 싹타액이 1,304억원으로 2007년의 2,043억원에 비해 36%가 急減하여 지상파 3사도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긴축재정을 위한 개편을 단행했다”고 소

개했다. 또한 다채널 다매체의 등장,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 저하 등으로 광고매출이 크게 떨어져 지상파 방송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증진과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다각적인 정책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전제한뒤 “지상파 방송사의 재원확보와 위축된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 ▲중간 광고제 도입 ▲미디어랩 경쟁체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가 모두 국영 체제인 네덜란드가 유일하게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유사한 공영 미디어랩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大韓言論人會 언론산업 위기진단 세미나 주제 발표

제1주제

신문경영 쇄신 방안

우리 나라 신문사들이 대부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이다. 신문 산업적 측면에서 그렇다. 독자 이탈과 광고 감소 때문이다. 그래서 몇몇 신문사를 빼고는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과 감봉 바람으로 젊은 기자들이 정년도 되기 전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다.



홍원기

· CBS 노컷뉴스 회장

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3. 신문수입구조
신문기업의 수입 구조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신문판매 수입, 광고 수입, 그리고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문사에 따라서는 출판, 인쇄 등을 바탕으로 한 잡수입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역시 신문사 수입은 대체로 광고 수입이 70~80% 이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가 신문사들이 광고 수입에만 몰두할 뿐 '신문사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신문판매조직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한 측면이 있다. 이것이 신문사 경영위기를 자초한 단초가 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신문판매 조직 확대를 바탕으로 각 신문사들이 공동으로 신문특성을 살려 신문광고시장 확장에 힘을 모아야 한다.

4. 우리 나라 신문판매 체계

우리 나라 신문판매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정배달제와 가두판매제(가판)이다. 가정배달제제는 전국 지사 지국 조직을 이용해서 배달사원들이 독자들에게 배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판'은 주로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별도 가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는 지하철 시대를 맞아 가판상권이 지하철 구내로 옮겨진데다 그나마 '무료신문' 등장으로 '가판'은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얼마나 유능한 사람을 지국장으로 선임하느냐가 사세 신장에 크게 좌우된다.

5. 일선 지국이 무너지고 있다

신문 지국장은 신문을 팔아 운영하는 사업가이다.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지국 운영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신문 지국을 포기하려는 지국장들이 늘고 있다. 신문 장사가 되지 않아서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신문사는 전국 주요 읍·면 단위까지 1,000여개 안팎의 단독 지국 조직이 갖추어져 있었다.

신문사 지국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었다. 관리금까지 공공연하게 등장했다. 관리금 단위는 지역에 따라 최소 1,000만원 안팎이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관리금은 커녕 그냥 운영해달라고 해도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 날이 갈수록 단독 지국 조직이 깨져가고 있다. 그래서 '겸영 지국'이 생겨났다.

한 가지 신문만 가지고는 장사가 되지 않아서다. A신문과 B신문, C신문과 D신문, 혹은 A신문과 C, D 신문 등을 겸영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가장 큰 이유는 신문배달 비용이다.

제2주제

방송광고 개선 방안

국내 광고 시장의 경우 2002년 이후 기존의 미디어인 TV와 신문의 광고 매출액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광고 매출의 경우 2002년에는 6.2조 원 규모에서 2007년 7.1조원으로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중 지상파 방송, 신문, 옥외 광고의 경우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케이블 TV와 잡지, 온라인 미디어의 광고비는 증가하였다. 특히 케이블 TV와 온라인의 경우 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각각 3.5배, 5.5배로 증가하면서 급속한 증가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

향후 DMB 방송의 활성화와 IPTV의 상용화로 인해 지상파 TV, 신문의 전통적인 미디어의 광고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광고 판매의 감소는 해당 미디어의 재원구조에 영향이 미치게 되고, 이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방송이 공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송 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방송광고 판매의 제도 개편이 논의되었다.

2008년 각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매출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10% 정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상파 3사중 가장 광고 매출액이 큰 MBC는 2008년 상반기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하반기에는 급감하였다. 2008년에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로 방송광고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광고 판매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방송업계는 방송 광고시장 위축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상파의 경우 다채널 다매체의 등장으로 방송 산업에서의 그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케이블TV의 성장으로 지상파 방송의 시청점유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상파 방송은 방송광고 판매가 수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광고 매출 감소는 방송사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방송의 디지털화, 프로그램 질적 향상,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 증진 및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상파의 광고 수익과 이 광고 수익이 지상파 방송의 재원 구조의 대부분을 이룬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에 대한 논의가 수신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민영방

송 역시 이러한 외적인 상황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다채널 다매체 상황에서 경쟁은 심해지고 지속적으로 제작 단가는 급등하며 프로그램 외주제작의 확대에 의한 콘텐츠 조달 비용은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이 안정적인 경영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영재원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KBS가 수신료라는 재원 구조를 통해 경영의 안정화를 이루고 질높고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면 MBC는 중간광고의 도입을 조심스럽게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고 있다. 중간광고 도입의 필요성은 광고주의 이탈현상에서 비롯되었다. 즉 PVR나 리모콘 때문에 광고효과와 시청률간의 연계성이 낮아지고 있어 광고주에게는 더 이상 TV광고가 매력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광고 사업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수신료 인상 문제, 중간광고 제도 도입, 미디어랩 경쟁체제 도입을 들고 있다.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광고의존 비율을 줄이기 위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민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방송사 재원 마련을 위해 중간광고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공익성을 저해하고, 광고매체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인 미디어랩 경쟁체제로의 전환은 그동안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적으로 판매해온 제도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 이후 가속화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방송법 규정과 방송법 시행령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송광고 판매 제도는 경쟁적인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현재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논의 중에서, 다수의 미디어랩을 설립하여 방송사들이 각각의 미디어랩을 통해 광고를 판매하는 완전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완전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방송의 공공성 저하 문제, 취약매체(지역민영방송, 종교방송 등)의 경영구조 악화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공영미디어랩과 하나의 민영미디어랩으로 구성되는 제한 경쟁체제라는 과도기를 한시적으로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고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수범

·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大韓言論人會 언론산업 위기진단 세미나 토론 지상중계

“신문 판매 기능 - 방송 수익 구조 개선 시급”

주제발표와 패널들의 토론에 이은 종합 질의응답에는 참가 회우들의 진지하고 열띤 토론으로 예정시간을 넘겨 발언자제를 요청할 정도로 세미나 열기가 뜨거웠다. 주제발표를 한 이수범 교수는 “학회 세미나에 참석해도 이처럼 열기가 뜨겁지 않다”면서 “원로 언론인들의 언론 위기에 쏠린 관심과 열정이 놀랍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회(文明浩 전 문화일보 논설주간)=제 1주제를 발표한 洪元基 한국일보 감사는 일선 판매지국을 살리고, 신문지대 인상과 광고 유치가 위기의 신문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판매부서의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무엇인가?

▲洪元基 한국일보 감사=1994년 <신문판매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을 내고 각 언론사에 나눠줬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한 분도 읽지 않았다고 한다. 판매전략에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증거다. 최근에는 편집국 출신이 판매국장으로 선임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물먹고 왔다”는 인식이어서 판매전략에 열의를 엿볼 수 없다. 신문사들도 제한적 경쟁으로 살길을 모색해야 하고 한국신문협회의 판매협의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諸宰馨 전 대한언론인회 회장=요즘 신문의 판매경쟁이 뜨겁다. 스쿠터 자전거를 경품으로 주고 심지어 상품권과 현금을 들고 길거리서 구독을 권유하는 실정이다. 그 만큼 신문경쟁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신문이 난립해도 특화를 잘 하면 살 수 있다. 한 지역신문에서 자문을 요청해와 특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 지역 초·중·고등학교 동창회장 인터뷰, 화수회 조직, 주부 글 게재, 청첩장 게재, 출향민 조직 소개와 인터뷰, 종교 및 사회봉사단체 활동 기사화 등을 추진한 결과 판매와 광고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

▲韓永鐸 영덕신문 사장=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신문발전위원회가 계속 존속돼야 하는지 궁금하다.

▲成樂五 전 영남일보 사장=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지원, 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지원대상 신문 선정의 투명성과 성과 등 그 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權寧國 강원일보 고문=요즘 TV드라마가 막가고 있다. 2년 반전 방송심의위원회 때 한 드라마에서 할머니가 손자를 때리자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렸다. 곧이어 따라온 아들은 어머니를 향해 “맛을 짓을 했군요”라고 말했다. 이런 패륜 드라마가 버젓이 안방을 파고들고 있다. 어쩌면 작가와 PD, 시청자가 모두 공범이다. 이제는 삼각관계로는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없어 4각, 5각 관계로 가는 불륜 드라마가 판친다. 숨방망이 처벌이 문제다. 처벌수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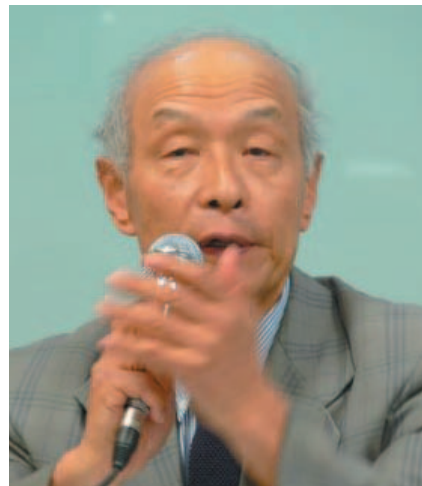
조창화 회장



성낙오 토론자



신대근 토론자



문명호 사회자



권영국 토론자



정두진 토론자

▲金潤坤(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신문 방송 겸영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세계적인 추세다. 대기업의 신문 방송 겸영을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

▲이수범 교수=개인적으로 우리 나라도 글로벌 미디어 하나쯤 나왔으면 한다.

▲申大根 전 대구 MBC사장=대기업의 방송 소유가 좋으나 나쁘냐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방송사도 자본 참여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대기업의 방송 소유에 반대한다.

▲金休宣(전 MBC 부국장)=무료신문의 난립으로 메이저신문의 광고매출과 구독률이 떨어지는 것도 신문위기의 요인이라고 본다. 현재 無價紙는 몇 개가 있으며 메이저 신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하다.

▲洪元基 한국일보 감사=무료신문은 광고단가가 싸고 효과적이어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신문협회에 찾아가 무가지를 이대로 방치하면 파장이 우려되는데 협회 차원에서 대안은 있는지 물었으나 무료신문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지금이라도 무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본은 무료신문에 뉴스공급을 안해주고 있다. 대안은 메이저 신문사서 무료신문 인쇄를 거부해야 하는데, 연간 인쇄 수입이 40억~50억원에 이르다 보니 경쟁적으로 인쇄를 해주고 있다. 무가지가 일반 인쇄시설에서 찍으면 속보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金鍾憲 전 김 에디터닷컴 대표=신문 제작이 무책임하다. 신문 종사자는 타지도 열심히 읽어야 하고 초판부터 개판을 거쳐 최종판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요즘 신문의 정정 기사가 많은 것도 신문을 잘 읽지 않기 때문이다. 차제에 ‘신문 읽기 캠페인’을 벌였으면 한다.

▲金健二 전 세계일보 수석 논설위원=구독료를 내려 판매 부수를 늘릴 수는 없는가? 작은 지방 도시에서 신문이 18~20개 나온다는데 신문난립 규제방안은 없는가?

▲洪元基 한국일보 감사=신문 용지대는 올라가는데 신문 구독료를 내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신문난립 규제방안은 뾰족한 대안이 없다.

▲사회(文明浩 전 문화일보 논설주간)=미디어랩은 경쟁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양립체제로 3년간 시행해 본뒤 민간 미디어랩을 전면 도입하자는 방안은 연구과제다. 시청료와 중간광고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연구과제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다.

▲趙昌化 대한언론인회 회장=언론산업은 낙관할 수 없는 과제가 많다. 언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생산적이고도 진지한 토론에 감사 드린다. 세미나 장소와 식당 예약 등 노고를 아끼지 않은 언론인 출신의 董文星 전 속초시장(민선 3선)과 朴溟根, 姜命秀 회우, 데일리안 전도일 기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린다. ☞

진지하고 열띤 토론... “學會보다 더 뜨거웠다”

강화해야 한다.

▲金和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막 가는 드라마’의 근본 원인은 시청률 경쟁이다. 시청률이 높아야 광고가 붙고 광고수입은 생존과 직결된다. 또 일일 연속극은 9시 메인뉴스 시청에도 영향을 끼쳐 드라마 위험수위가 높아진다. 도덕성 등 저질 드라마는 사회현상보다 앞서간다. 광고에 의존하는 수입구조도 문제다. 방송사의 수입구조 다변화가 살 길이다.

▲朴晉緒(전 서울신문 논설위원)=朝刊은 읽어 볼 시간적 여유가 모자라 오히려 夕刊을 보는 경향이 늘고 있다. 조간을 석간으로 전환하는 것도 경영수지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신문경험과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CEO가 신문경영을 맡아 전력투구하지 않기 때문에 신문산업이 사양길을 가고 있다. 경영과 거리가 먼 愚考를 가진 CEO가 경영하면 흑자전망이 없다. 신문의 수입구조 다변화만이 살 길이다.

▲洪元基 한국일보 감사=조간이 좋으나 석간이 좋으나를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석간은 발송체계상 독자가 원하는 시간에 배달하기 어렵다. 오후 6시쯤 석간이 가정에 배달되면 주부는 저녁 준비를 하느라 읽을 시간이 없고, 퇴근한 가족들은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어 오히려 읽지 않는 경향이 많다. 광고효과도 조간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잊지 못할 그때 그일들

朴正熙 대통령과의 인연



정준모

· 본회 회우
· 전 신아일보 도쿄특파원
· 6·25 종군기자

19가 일어나고 수많은 학생과 젊은이들이 희생되고, 李承晩은 하야하고 李起鵬 일가족은 그의 아들 이강석의 권총에 생을 마감했다.

나는 동터오르는 제5공화국의 새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朴正熙 소장의 청렴강직함을 부각시켜 사전을 곁들여 크게 보도했다.

만약 4·19가 성공하지 않았다면 그는 특무대에 구속되어 곤욕을 치르고 군부를 떠났을 것이라는 점도 알렸다.

민주신보가 배달되자 공보실장 李洛善 소령은 사령관실로 가져갔다. 朴 소장은 李 소령이 읽는 기사를 지긋이 눈을 감고 듣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후부터 관리참모 朴泰俊 대령, 비서실장 尹必鏞 중령, 의무참모 丁海植 대령 등 전참모들은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어느날 丁 대령 방에 머물고 있는데 李 소령이 “여기 계셨군요.” 한참 찾아 다녔다면서 사령관님이 적적하실 테니 이야기 상대라도 해드리라며 억지로 끌다시피 하여 사령관실로 밀어 넣었다. 사령관 책상 위에는 일본책이 쌓여 있었다. 독서를 많이 하는 장군이라 생각됐다. 책은 李 소령이 사다 올린다고 했다.

4·19후 매일같이 데모가 벌어졌다.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부산·경남지구에는 朴 장군이 계엄사무소장으로 임명됐었다.

억눌렀던 민심은 폭발하고 매일같이 데모가 계속되던 어느날 朴 계엄사무소장의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朴 소장은 민심수습이 제일이라고 역설했으나 알맹이가 없었다. “사령관님 그러서는 민심수습 안됩니다. 데모대에 발표명령을 한 경찰간부가 건재한데 민심수습 되겠습니까?” 하자 증거

가 있느냐 했다. 민주신보 며칠날 신문 1면에 지휘봉으로 군중을 겨누면서 발포를 독려하는 사진이 실렸고, 그는 경남 경찰국 경비과장에서 교통과장으로 영전까지 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헌병 참모를 불렀다. 金詩珍 대령이 들어서자 “잡아 넣어!” 한마디였다.

朴 소장의 군사혁명이 성공하고 金 대령은 준장으로 진급. 헌병감 2년의 임기를 마치고는 청와대 정보수석 비서관으로 들어가 있을때 ‘실미도’ 사건이 터졌다.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각군의 흉악범 사형수와 서울 거리에서 강제로 잡아간 젊은이들을 ‘실미도’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고 있었다. 급식도 육류 위주여서 체력은 몰라보게 좋아졌고 종3의 참녀들을 한달에 한번씩 비밀리에 위문시켜 사기는 꽤 올라가 있었다. 성공하면 좋은 자리도 약속됐다.

어느날 정보부장 김형욱은 朴 대통령에게 “김신조처럼 우리도 大同江을 거슬러 올라가 평양 金日成의 목을 베어 올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랑스레 보고했다. 朴 대통령은 대경실색 전쟁을 일으킬 셈이나고 질책, 당장 계획을 취소하고 비밀부대를 해체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얼마 후 김형욱은 물러나고 후임 金桂元 부장은 이런 비밀부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실미도’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실미도’ 부대는 일시에 급식이 형편 없게 되고 고아신세가 됐다. 군기는 엉망이 되고 견잡을 수 없게 됐다. 통제 불능. 2~3명의 대원이 야간에 이웃 섬으로 헤엄쳐 건너가 초등학교 분교의 여교사를 윤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원들은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 청와대로 가서 직소하자고 어선을 탈취, 仁川으로 상륙, 시외버스를 빼앗아 京仁가도를 달렸다. 도중 경찰 사이드

카가 추격하자 총을 쏘아 죽였다. 서울 대방동 유한양행 제약회사 앞에서 헌병과 경찰이 집중사격, 성난 이들을 막아 낼 수 있었다.

아침부터 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열었다. 국방장관, 각군 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은 무장공비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모호한 상황판단이였다. 金 청와대정보수석 비서관은 안보회의실로 들어가서 朴 대통령에게 흰 종이 한 장을 살며시 내밀고는 나왔다.

朴 대통령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자 참석자들 모두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金 정보수석 비서관은 매일 들어오는 정보를 그날 그날 타이핑시켜 꼼꼼하게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선을 넘기지 못하고 암으로 죽었다. 가까운 사람을 잃었다.

이야기는 다시 부산시대로 되돌아간다. 朴 군수기지사령관은 宋 육군참모총장에게 서한을 보내어 3·15부정선거에 개입한 책임으로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하고 이것은 모든 장군들의 한결같은 여론이라고 했다. 宋 육군참모총장은 대로하여 朴 군수기지사령관을 光州관구사령관으로 좌천시켰다.

기자단은 송도해수욕장에서 전복, 광어, 붕장어 회에 맥주, 소주로 송별연을 열어 그의 좌전을 아쉬워하며 위로했다.

宋 육군참모총장은 군부내의 압력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고 후임에 崔榮禧 장군이 들어섰다. 崔 참모총장은 光州관구사령관 朴 소장에게 육군본부 작전참모를 맡을 것을 종용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유는 崔 참모총장 역시 군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朴 소장은 崔 총장의 노여움을 사서 大邱 2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좌천되었다. 잊따른 좌천이었으나 朴 소장은 오히려 부사령관이라는 한직을 이용, 차분히 군사혁명 계획을 극비리에 추진해 나갔다. 그 중심에는 그의 조카사위 金鍾泌 예비역 중령이 있었다.

좌전에서 군사혁명 성취, 그야말로 전화위복이었다. 소용돌이 칠 역사가 잉태되고 있었다. ㉔

18면 '신문경영'에서 이어집니다.

신문판매 수입은 늘기는 커녕 줄어 들고 배달 인건비는 늘어나니까 지국장들은 채산을 맞추기가 어렵게 됐다.

6. 언론 통폐합과 신문산업

우리 나라 신문산업은 1980년 ‘언론 통폐합’ 조치에 따라 엄청난 격동기를 맞았다. 전국 28개 신문사를 21개로 통폐합하고 7개 사이던 통신사는 1개사로 축소했다. 특히 지방지는 일도일사(一道一社)원칙을 채택했다.

따라서 살아남은 신문사는 산업 측면에서는 최대 호황기를 맞았다. 중앙 5개 일간신문사 매출액이 급증했다. 1981년 1개사 매출액이 평균 104억원대이던 것이 1986년에는 225억원대로 5년 동안 2.2배나 뛰어 올랐다. 지방신문 역시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제조업 성장률(1.8배) 역시 높은 편이었는데도 신문 산업 성장률이 훨씬 높았다.

7. 다시 신문난립 시대로

신문산업은 제6공화국 출범을 전후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987년 6·29선언, 1988년 언기법(言基法) 폐지 등으로 우리 나라 신문산업은 독점적 산업기반에서 자율경쟁 체제로 바뀐에 따라 신문시장은 획기적인 구조개편이 이루어졌다. 우선 신문사들이 다시 난립했다. 1987년 6·29선언 당시 30개에 불과하던 일간신문이 2009년 5월말 현재는 203개사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문사 난립은 신문사간 출혈경쟁을 더욱 촉발시켰다.

8. IMF와 신문경영

신문산업은 IMF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각 신문사는 신문 호황기에 앞을 다투어 시설투자에 뛰어 들었다. 그래서 각 지방 분공장을 설치, 동시 인쇄 체제를 갖추는 등 과열경쟁으로 치달렸다. 이 시설투자는 대부분 금

융자금으로 충당했다. 신문 장사가 잘되니까 금융부채는 우선 쓰고 보자는 분위기였다. 신문사는 금융대출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때였다. 그래서 각 신문사는 대체로 수백억원, 수천억원씩 금융부채를 안고 있었다. 그러다가 IMF를 맞았다.

신문사는 줄지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금융 이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IMF로 각 산업이 어렵게 되자 광고량이 부쩍 줄었다. 결국 금융 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광고는 줄어드니까 신문사들이 큰 경영위기를 맞게 됐다.

그래서 언론산업에 뛰어 들었던 재벌들이 손을 뗐고 신문사들은 부동산 등

을 팔아가며 빚갚기에 허덕였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는 와중에 이번에 또다시 금융 불안에 따른 불황기를 맞아 각 신문사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에 있다.

9. 신문도 기업이다

신문 역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경영층부터 판매부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신문만 잘 만들면 잘 팔린다’는 안일한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팔리는 시대에서 파는 시대’로 바뀌었다.

이것이 신문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못 팔면 쓰러진다. ㉕

18면 '방송광고'에서 이어집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KOBACO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민영 미디어렐 설립에 따른 제도적 보완과 취약매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후 완전 경쟁체제

를 채택하는 것이 방송사의 재원 마련과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 발전에 적합할 것이다. ㉕

中國에서 고려 節臣 제사 韓中日 국제 학술대회에 다녀와서

중국 절강성(浙江省) 동려현(桐廬縣) 인민정부 초청을 받아 지난 5월 21일 중국을 방문했다. 방문 목적이 매우 의미가 있어 흥미로웠다.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우리 나라 고려말 절신(節臣)에 대해 제사를 지내고 국제학술강연회를 연다는 것이다. 그것도 비록 작은 현이지만 인민정부가 주관하고 있다.

학술회의 주제는 고려말 절신 퇴암(退庵) 김거익(金居翼)과 중국 후한의 엄자릉(嚴子陵) 두선생에 대한 의리를 선양하는 연구발표회. 그리고 엄자릉의 사당 옆에 퇴암의 병명비(屏銘碑)를 3년전에 세웠는데 여기서 고유제(告由祭)를 지내는게 행사의 목적이다. 이 행사에 중국 광서(廣西)사범대학, 한국 충남대학교, 일본 구주(九州) 퇴계학연구회가 참여했다.

초청에는 교수 학계 등 13명. 여기에 일반 참가 희망자 150여명이 합세해 방문단의 규모는 168명에 이르렀다.

상해 포동공원에서 5대의 버스에 동려로 향했다. 주변은 경지정리가 바둑판처럼 잘 뚫고 수로도 완벽했으며 3시간 이상 달리면서도 산을 찾아볼 수 없는 평야가 펼쳐져 곡창지대임을 실감케 했다. 농촌 가옥들은 모두 3층. 습도가 높아 1층은 창고로 이용하고, 집안에 별세한 부모를 모시기 때문이라 했다.

고속도로를 5시간 넘게 달려 동려현 경계에 이르자 경찰(公安)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에스코트를 했다. 홍루(紅樓) 국제호텔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시차 1시간, 한국시간 9시)가 넘어서였다.

1층 연회장 입구에 현의 기관장 유지는 물론 젊은 남녀 30여명이 단정한 복장으로 양쪽에 도열해 열렬히 환영했다. 인민정부가 마련한 환영만찬. 초청

인사들에게는 원탁 테이블에 일일이 명패를 놓아 현지 인사들과 짝을 이뤄 대화를 이끌었고 접빈하는 질서는 일사불란했다.

아침 일찍 호텔을 출발해 시가지를 벗어나 30분쯤 달리니 규모가 큰 강이 나타났다. 강변 길로 접어들자 엄자릉 조대(嚴子陵釣台)라는 안내판이 눈길을 끌고 오늘 행사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버스는 조그마한 선착장에 닿았다. 도로로는 여기가 마지막. 100여명 승선이 가능한 유람선 2척이 대기하고 있었다. 드넓은 호수로 배가 미끄러지듯 강속으로 나서자 이곳이 장강삼협, 계림산수와 함께 중국 3대 산수 경치지대라 했다.

주변에 소삼협과 용문만(龍門灣)이 그림처럼 펼쳐 있고 노젓는 주민들의 조각배는 마치 선경을 방불케 하는 황홀경에 빠지게 했다.

경치에 취해 10여분이 지나자 산속의 언덕 작은 선착장에 닿았다. 엄자릉 낚시터라는 돌비석과 절경의 선전간판이 맞았다. 현장에는 신문·TV·통신 등 10여명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취재에 열을 올렸다. 이 낚시터는 경치가 수려해 중국 10대 낚시대 고적중 하나로 꼽힌다. 선상유람과 수상레저를 즐기는데 1인당 100위안(한화 20,000원)이니 적지 않은 요금이다.

엄자릉 사당 오른쪽으로 중국 유명한 역대 인물들의 20여개 시비(詩碑)가 세워져 있고, 끝부분 높은 언덕에 세쪽으로 된 비가 퇴암 병명비였다. 우리 나라 사당 배치도로 보면 상석(上席)이다.

한 기(基)로 세우려 했으나 수상운송이 어려워 3쪽으로 나눠 세웠다는 것이다. 비앞에 제물이 차려지고 제사가 올



김양섭

- 본회 회우
- 전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 한국씨족문화연구소장



퇴암 김거익선생 병명비 고유제.

려졌다. 제관들은 유건에 도포로 우리 나라 고유형식을 갖췄다. 金重緯 전 환경부장관 李鐘晟 충남대교수 河賢鳳 주상해 한국총영사관 문화원장, 일본측 히키다(正田啓佑)九州퇴계학연구회장이 술잔을 올리고 축원의 소리가 중국 산천을 흔들었다. 중국은 제사에 술잔을 올리지 않는 풍습이어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호텔에 돌아와 국제회의장에서 한·중·일 국제학술 강연회를 가졌다. 참석 인원은 300여명. 주제 발표는 金柱白 충남대 수석연구원을 비롯해 한·중·일 교수 학자 등 5명이었다.

엄자릉의 성명은 엄광(嚴光), 자릉은 자이다. 그는 유수(劉秀)와 동문수학한 절친한 친구였는데, 유수가 1세기초 나라를 평정하고 후한(後漢)을 세워 광무제(光武帝)가 됐다. 광무제는 흔탁한 세상을 피해 이곳 낚시터에서 양가죽을 쓰고 낚시로 세월을 보내는 엄자릉을 여러 차례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다.

김거익은 고려말 정당문학(正堂文學)의 벼슬에 있으면서 이성계와 친분이 두터웠다. 이성계가 조선조를 개국하고 태조가 되자 백제의 고도 부여로 내려가 숨어버렸다. 태조는 우의정의 벼슬을 내리고 세차레나 불렀으나 역시 나오지 않았다.

두사람은 시대적으로 1,300여년의 차

이는 있지만 국가를 위한 충성심은 동일했다. 발표자들은 이들의 절의정신은 물질문명의 발달로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현대인에게 삶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뜻을 같이 했다.

다음날인 23일 오전 9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항주의 명소 서호(西湖)의 유람선 선착장에는 마치 인종 전시장인 듯 각국의 관광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여기서 한국 방문단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국내 소식이 전해졌다.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소식에 분위기는 침울했다. 가장 청렴을 앞세웠던 한때 일국의 통치자가 비리혐의로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는 한국적 비극에 자릉·퇴암 두선생의 정신이 다시 한번 빛나 보였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는 수리를 하고 있었으나 방문에는 지장이 없었다. 초라한 3층 공간에서 독립운동의 처절한 사연을 살펴보고 또다시 우리 나라 정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절의를 지킨 두 선인(先人)과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을 내건 독립투사들, 그리고 법망을 피해 보려고 간간힘을 쓰다가 스스로 생에 종지부를 찍은 전직 대통령. 짧은 기간에 파노라마처럼 느끼고 겪은 일이지만 자못 혼란스러웠다.

귀국길에 오른 발걸음은 자못 무겁기만 했다.㉔

그때 그일

‘女史’들과의 對決 3일

동아방송(DBS)에서 자선실화극 ‘이 사람들!’이란 프로그램을 맡아서 제작하고 있던 1964년 여름.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청취자 편지들 속에서 어느 여성이 보낸 색다른 내용을 읽게 된다. 스토리의 개요는 이렇다.

남편 정태운(가명)은 해방이 되면서 만주에서 단신 귀국해서 육사 8기생으로 소위로 임관, 6·25전쟁을 거치면서 중령으로 승진. 부인 양창숙(가명)은 여고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여 부대 이동을 따라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녔다.

남편은 군생활 10년만에 예편, 막연히 사업을 한다고 수입 없이 떠돌기만 하고, 아내는 재봉틀 하나로 샅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때마침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다. 남편은 신문에 나는 주체세력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제 고생은 끝났으며 재향군인회 어느 분회장을 맡았다고 큰소리치며 곧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이웃들로부터 빛을 끌어들인다. 그러나 아무것도 성사되지 못한채 남편은 편지 한장 써놓고 집을 나간후 소식이 두절.

아내는 빛에 쫓기며 아이들과 생활을 위해 직업소개소 주선으로 여관 ‘조바’(종업원)로 일하고 있다는 사연. 5·16주체들의 위세가 등등할 때지만

방송소재로 적정할 뿐 아니라 그 여성의 호소가 애처로웠다.

주인공 부인을 만나서 사연을 녹취하고 극화작업에 들어갔다.

작가는 김기팔(金起八), 연출은 안평선, 제목은 ‘어느 8기생의 아내’. 그런데 녹음을 마치고 방송 내보내기 하루 전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다.

◇ 첫날

어떤 손님들이 방송국으로 찾아왔다. 담당 PD를 찾는다. 응접실에서 만났다. 화려하게 치장한 30대 초·중반쯤의 부인 4~5명이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말아 달란다. 그럴 수 없다. 본인이 직접 방송에 참여했고 방송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부탁하는 어조였는데 단호하게 거부로 일관하니까 끝



安平善

- 전 KBS 춘천총국장
- (사)한국방송인회 상임부회장
- 본회 회우

내는 거칠어지면서 본색을 드러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당신 책임이니까 알아서 하라.

◇ 둘째날

다음날 주인공 부인이 행방묘연이던 남편과 함께 찾아왔다.(아마도 그 부인들이 조지한 듯)

초라한 행색의 남편은 방송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아내가 생각없이 한 일이니가 당장 취소를 결정해 달라. 안그러면 당신 각오하라.(부인은 옆에서 울기만 했다) 방송을 취소할 수 없다고 끝내 거부했다. 그러니까 남편은 막판에 엉뚱한 협박을 했다.

만약 오늘밤에 방송이 나가면 죽어버릴 테니까 내일 아침 남산 기슭에 와서 내 시체를 찾아 처리해 달라. 뜨끔했다. 정말로 자살하면 어떡하나? 아직 총각 PD일 때지만 순간적인 망설

임이 스쳤다. 그러나 다시 정리했다. - 방송은 내야 한다. 책임은 내가 진다. -

상사에게 일절 보고하지 않았다. 회사가 개입되면 복잡해지고 방송 여부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 개인책임으로 끝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 셋째날

방송이 무사히 나가고 다음 날, 약간의 초조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어디가 무서운게 아니라 ‘남산 기슭의 변신체’ 협박이 떠올라서였다.

그리고 저녁 무렵. 그 부부가 다시 방송국으로 찾아왔다. 우선 반가웠다. -아, 안죽고 돌아왔구나. -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하고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방송이 오히려 용기를 주었다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내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뜨거운 극적인 장면이었다. 내색은 안했지만 안도의 숨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유도 모르게 젊은 내가 미안스럽고 방송인으로서 못할 일을 한 것같은 뉘우침마저 들었다.

온순하고 착해 보이는 그 부부의 소식은 끊어졌지만 가끔씩 떠오르곤 한다. 역전에 반전으로 결말을 짓는 3일간의 단막 드라마였다.㉕



회 우 동 정

(가나다순)

‘미디어 집중도 조사...’ 세미나



★ 고헌용(한국언론재단 이사장) 회우 = 6월 1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대강의실에서 ‘미디어 집중도 조사 모델 모색’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

惠田 權赫昇 喜壽展 개최



★ 권혁승(한국일보 사우회 회장) 회우 =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인사동 白岳미술관에서 惠田 權赫昇 喜壽展을 연다. 초대 일시는 7월 2일 오후 5시. 회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노무현 비극의 교훈...’ 강연회 개최



★ 남시욱(광화문 문화포럼 대표) 회우 = 6월 1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함성득 고려대 교수를 초청, ‘노무현 비극의 교훈과 과제’라는 강연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공정언론 시민연대’ 공동대표 선임



★ 문명호(본회 부회장) 회우 = 방송과 신문의 편파보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 ‘공정언론 시민연대’ 공동대표에 선임됐다.

육군부대 찾아 안보특강



★ 박기병(전 강원 민방사장) 회우 =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7일 보병 2사단 방공중대에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자”라는 주제로, 6월 24일 육군 31연대 대공포대에서 “국가안보와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

‘대북정책...’ 주제 세미나 개최



★ 박범진(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회우 = 6월 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와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을 초청, ‘대북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런던에서 약 한달동안 요양



★ 박용운(한국신문사 사진 동우회장) 회우 = 지난 5월 30일 요양차 영국 런던으로 떠났다. 박 회우는 약 한달 동안 런던에 머물면서 휴양할 예정이다.

‘...한미 관계’ 주제 연례 세미나



★ 봉두완(주미 특파원 모임 한미클럽 회장) 회우 = 6월 15일(미국 현지 시간) 이명박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미 아메리칸대와 공동

으로 ‘이명박 정부에서의 한미관계’를 주제로 제2회 연례 세미나를 개최.

‘자랑스런 서울법대인’ 표창



★ 손일근(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상임 부회장·경원대학교 법정대 초빙교수) 회우 = 지난 6월 5일 서울대 법대에서 열린 서울대 법대 동창회 총회에서 제 17대 ‘자랑스런 서울 법대인’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음.

교회 등서 특강·칼럼 기고



★ 이광영(대한암협회·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 회우 = 지난 5월 24일 서울 수유동교회 청년부에서 ‘과학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주제로 특강. 6월 1일 월간 <담배 없는 세상>에 ‘담배와 착시’를 주제로 칼럼 기고. 6월 16일 강북보건소 강당에서 ‘간접 흡연의 폐해’를 주제로 특강.

제주 EXPO 司會 맡아



★ 이보길 회우 = 지난 6월 2일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10개국 정상회의의 사전행사로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 국제문화관광 EXPO’가 열렸는데,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16개국 주한 외국대사와 그 부인들이 펼치는 각국 전통의상쇼와 한복패션쇼·궁중다례의식 등의 사회를 맡았다.

세종재단 이사로 선임



★ 이재승 회우 = 지난 6월 17일 세종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두고 있는 세종재단의 이사로 선임됐다.

기후변화 주제 세미나 개최



★ 이태교(서울부동산포럼 회장·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회우 = 지난 6월 17일 메리어트 호텔에서 ‘기후변화가

비즈니스를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

北歐지역 문화 역사탐방



★ 이태자(양전철학관 대표) 회우 = 오는 7월 27일 영국 런던 친지의 초청으로 약 1개월간 스웨덴, 덴마크 등 북구 지역 문화 역사탐방 위해 출국, 8월말 귀국 예정.

유엔 사무차장 환영 조찬회



★ 임덕규(월간 디플로머시 회장) 회우 = 7월 3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체이크 시디 디이라 유엔 사무차장 환영 조찬회를 개최한다.

박물관대학 등에 등록 수강중



★ 임한순 회우 = 최근 민속박물관 대학, 서울시민자치대학, 산림대학(서울대학내), 수원시립정조실록대학, 화성 박물관대학, 안양시

민자치대학, 천도교 종합대학원, 유명모 함석헌 사상 강좌 등에 등록하여 수강중. 1주일에 단 하루도 쉴 날이 없다고...

캐나다 딸집에서 1개월 휴양



★ 지용우(본회 편집고문) = 6월초 캐나다로 떠났다. 지 회우는 한달 동안 따님의 집에 머물면서 휴양하다가 6월 말쯤 귀국할 예정.

‘한국 신문 방송인 포럼’ 운영위원장



★ 천상기(경기대 초빙교수) 회우 = 지난 5월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국기자클럽에서 열린 ‘한국 신문 방송인 클럽’(www.knbf.co.kr) 발기인 출범대회에서 운영위원장에 위촉되어 언론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현을 위한 토론 한미당을 가졌다.

김성환 화백 6·25 소묘 105점 국립현대미술관서 구입

원로 시사만화가로 오랫동안 신문에 ‘고바우’ 만화를 연재한 김성환 화백(본회 회우)이 6·25 당시의 상황을 스케치한 소묘작품 108점중 105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구입, 영구 보존케 됐다. ‘6·25 소묘집’은 日本 東京에서 화집으로 지난해 출간된바 있으며, 京都市와 국제만화박물관에서 초대 전시를 가진바 있다. 한 사람의 화가 작품을 100점 이상 국고로 구입한 예는 펍 드문 일로 알려져 있다.



金大宇 전회우 美서 별세



김대우(金大宇)= 전 서울신문 편집부장이 6월 23일 美 뉴욕 자택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황해도 안동태생으로 고려대 상과를 나와 Korea Times 기자로 언론계에 투신한 고인은 서울신문에 몸담기 앞서 한국·동아·조선일보 기사를 거쳐 4년간 대한일보 편집부장을 역임했다. 유족은 미망인과 LA에서 동물병원을 경영하는 아들 승호씨가 있다. 연락처 718-882-6448

주 소 변 경

- ★ 김경중 =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278-86
- ★ 김재영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28-79
- ★ 한광희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19-13 한솔고시텔 901

전 화 번 호 변 경

- ★ 홍성혁 = 010-8936-6562

회 비 납 부

2009년도 김태운 김한봉 나필성 마권수 박영래 신광식 안건혁 양성목 유성열 이종식 장창영 전의식 정범태 정용희 조관희 한동원 2008년도 조규하

회 우 경 조 사

김광희 회우 = 6월 23일 부인상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을 이룬 나라입니다.

이들이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평등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개선으로 아름다운 농촌을 가꾸는 신문

 **농축환경신문**

구독 · 광고 문의 (02) 582-4016 (代)



Great Challenge

위대한 도전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새로운 내일은 열리지 않습니다

한화는 **Great Challenge** 2011을 통해 초일류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Your Dreamworld

Hanwha